

제23회 수상자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시상부문

- ① 대상
- ② 젊은지도자상

추천대상 및 자격

- ① 대상 : 전문성, 창의력, 헌신과 기여 등을 바탕으로 여성 지도력 발휘 및 향상에 크게 공헌한 대한민국 여성
 - ② 젊은지도자상 : 전문성, 창의력, 헌신과 기여 등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50세 이하의 대한민국 여성
 - 기후위기 등 다중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여성
 - 문화·예술·과학 등 전문 분야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 다양한 소통과 포용적 실천을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한 여성
 -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력, 정의, 평화 실현에 기여한 여성
- ※ 단 본 상과 유사한 상의 수상경력자는 제외함.

시상내용

- ① 대상 : 상패, 상금 3천만원
 - ② 젊은지도자상 : 상패, 상금 2천만원
- ※ 단 공동수상의 경우에는 상금을 균분하여 수여함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 ① 발표 : 2025년 9월 말 (수상자 개별 연락)
- ② 시상 : 2025년 11월 20일(목) 오후 2시 / 온드림 소사이어티

추천방법

- ① 추천서식 작성 및 이메일 접수
 - ② 온라인 추천 : 추천서식 및 온라인 추천 링크,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www.ywca.or.kr 참조
 - ③ 접수기한 : 2025년 9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 T.02-6952-4771로 문의

한국YWCA 02.774.9702

(사)강릉 033.651.1385	(사)대전 042.254.3035	(사)속초 033.635.3523	(사)의정부 031.853.6332	(사)춘천 033.254.4878
(사)거제 055.682.4950	(사)동해 033.531.3007	(사)수원 031.252.5111	(사)익산 063.857.8910	(사)충주 043.848.3240
(사)고양 031.919.4040	(사)마산 055.246.8746	(사)순천 061.744.7990	(사)인천 032.424.0524	(사)통영 055.646.2547
(사)광양 061.762.0012	(사)목포 061.242.1611	(사)안동 054.854.5481	(사)전주 063.224.5501	(사)파주 031.945.5998
(사)광주 062.609.1300	(사)부산 051.441.2221	(사)안산 031.483.6536	(사)제주 064.711.8322	(사)평택 031.651.7701
(사)군산 063.462.4491	(사)부천 032.668.9700	(사)안양과천군포의왕 031.455.2700	(사)제천 043.645.2580	(사)포항 054.274.4444
(사)김해 055.332.6000	(사)사천 055.833.2344	(사)양산 055.367.1144	(사)진주 055.755.3463	(사)하남 031.793.7771
(사)남양주 031.577.7762	(사)서귀포 064.762.1400	(사)여수 061.654.2161	(사)진해 055.542.0020	
(사)남원 063.632.7002	(사)서울 02.3705.6000	(사)울산 052.247.3520	(사)창원 055.283.9488	
(사)논산 041.736.7393	(사)성남 031.708.2503	(사)원주 033.742.6090	(사)천안 041.575.0961	
(사)대구 053.652.0070	(사)세종 044.865.2432		(사)청주 043.265.3700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특집

YWCA는 교육이다

2025 YWCA 전국 회장단 연수
회원YWCA 사무총장 연차별 역량강화 교육
2025 YWCA 신입이사 교육
YWCA 신입실무활동가 교육

기획

우리시대의 평화

히로시마 순례
갈등을 다루는 안전한 공론장
전쟁없는 한반도 6.6 한반도 평화대회
제12차 한일YWCA협의회

정책, 현장 속으로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모니터링사업 결과보고

YWCA의료공론플랫폼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공론의 장



더 나은 의료 시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한국YWCA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YWCA는 의료소비자운동 전개를 통해 시민이 의료정책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며, 정책 개선과 제도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의료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공공재로서 더 많은 시민이 의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깨닫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홍보,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사회를 여는 가장 큰 힘입니다.


후원 계좌 | 농협 301-0226-0851-01
한국YWCA연합회

CONTENTS

Vol.593
2025 SUMMER 04+05+06+07
www.ywca.or.kr

한국YWCA 목적문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8월~10월 주요 일정

8월 5일, 12일	2025 YWCA 기지개 캠프
8월 19일~21일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8월 20일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
8월 28일~30일	싱가포르YWCA 150주년 기념행사
8월 30일	Y-틴 전국연대행동 과정공유회
9월 1일	월례아침기도회
9월 16일~18일	2025 중견실무활동가 교육
9월 24일	제3차 YWCA의료공론플랫폼
9월 26일	운동이슈브리핑
9월 27일	9월 기후정의행진
10월 1일	월례아침기도회
10월 21일	YWCA정책협의회

제62권 제2호 통권 593호
2025년 7월 21일 발행(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조은영 편집인 박은실
편집 안정희 이주영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아침열시디자인 인쇄 지경문화사
전화 02)774-0230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3만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COVER STORY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2025전국 회장단 연수에 모인 전국 50개 회원YWCA 회장을 탈핵기후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보건·의료, 돌봄, 시민사회활성화 총 6개 부문에서 정책의제를 제안하며, 우리사회가 정의·평화·생명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02 이달의 생각
'서로 돌아보는' YWCA를 소망하며 김은경

03 말씀 묵상
온빛 - 세상을 비추는 빛 이윤미

특집 | YWCA는 교육이다

04
2025 YWCA 전국 회장단 연수
민주주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YWCA 편집실

06
한국YWCA 성명서
정의·평화·생명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07
회원YWCA 사무총장 연차별 역량강화 교육
위로와 연대하는 용기 가득한 동역자들 김미애

10
2025 YWCA 신입이사 교육
손잡고 마음 모아 연대는 YWCA 신입이사 정서연 김경희 공지숙

12
YWCA 신입실무활동가 교육
지역과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최유주 박선미 윤정민 정니은

기획 | 우리시대의 평화

16
히로시마 순례
평화를 향한 Y- 틴의 발걸음 이은혜

19
갈등을 다루는 안전한 공론장
다름을 이해하는 새로운 대화 박소영

21
전쟁없는 한반도 6.6 한반도 평화대회
오늘 내딛는 이 걸음, 내일 평화를 연다 편집실

23
한반도평화대회 호소문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편집실

24
제12회 한일YWCA협의회
인권, 평화, 그리고 이바소 김수진

26
중·인 | YWCA의료공론플랫폼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공론의 장 안정희

29
교육현장을 찾아 | 경남YWCA협의회 성평등운동 역량강화 워크숍
여성이 주도하는 성평등 솔루션 반혜영

32
정책, 현장 속으로 |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모니터링사업 결과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지자체 이행 의지 핵심 남궁혜경

36
현장 ① | 제1697차 수요시위
진실과 평화를 향해 행동하는 용기 추은지

38
현장 ② | 쿠팡 노동자 추모·세종호텔 부당하고 노동자 연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추은지

40
청년토크
젠더기반기술폭력(TFGBV)이라는 새로운 위협 대학·청년YWCA

42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 SI 저작권
인간과 기술의 책임을 나누는 철학적 기준 김윤명

44
모금이야기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 위한 지원금 전달
생명 존중의 연대가 공동체 살림으로

45
연합회 소식

53
회원YWCA 소식

‘서로 돌아보는’ YWCA를 소망하며


2024년 2월 22일, 전국 50개 회원YWCA 대표와 연합회 직무상대표 등 160여 명이 ‘정기총회’ 자리에서 2024-2025 2년간 추진할 중점운동과 지역특화운동을 정하고 지역사회를 이끄는 건강하고 투명한 기독교시민운동 단체가 될 것을 결의했다.



중점운동인 ‘탈핵기후생명운동’은 정의로운 탈핵·탈석탄 에너지 전환 사회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성평등 관점의 기후에너지정책과 기후위기대응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등이 주요 과제다. 지역특화운동으로 채택한 3가지 운동 중 하나인 ‘성평등운동’은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젠더기반 폭력 저지, 성평등운동 주체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그리고 ‘평화·통일운동’은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 촉진, 국방 안보통일 정책 분야 여성대표성 확대, 동아시아 여성청(소)년의 평화 활동 연대 구축 등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마련을 목표로, 마지막으로 ‘청(소)년운동’은 청(소)년 자치 활동 지역 조직 확대, 지역 청(소)년 운동 이슈 발굴 및 실천 등 청(소)년 민주 시민의 역량 확장과 주체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양한 수준의 협의 과정과 교육, 연수 등을 토대로 함께 달려온 지난 1년 반을 돌아보며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다. 먼저 운동에 필요한 사전 준비와 학습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한데 모여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가능하고 재생 에너지사업 확장

을 위해 눈앞에 놓인 걸림들은 무엇인가? 성평등 관점의 기후위기대응정책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성평등추진체계의 효과성은 각 부처 정책의 성주류화를 목표로 정책 조정과 점검, 평가, 지도와 조언에 있기에 정부 내 다양한 수준의 협업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지방정부 차원으로까지 확대하여 국가 단위 정책이 지역으로까지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범 부처, 전국단위 정책 추진 네트워크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제한한 와이의 6개 분야 정책 의제들은 현실로 실현될 수 있을까? 마음이 바빠진다. 기독교여성으로, 와이운동가로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간을 쪼갬다. 와이운동에 헌신한 선배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담긴 사료들과 운동의 기록들을 찾아보고, 탄소중립법, 양성평등기본법, 근로기준법, 여성경제활동법 등 와이운동을 위해 필독해야 할 관련법을 뒤적이고 헌법도 빼놓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큰 통찰력과 혜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얼굴을 맞대고 빵과 차를 나누며 허심탄회 虛心坦懷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제공하는 학습의 순간이 아닐까?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초연결의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갈수록 연결이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고, 나누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에 기반한 참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연대의 자리가 그리워진다. 모이기에 힘쓰는 와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온빛-세상을 비추는 빛

(마태복음 5:14-16)

‘온빛’은 순우리말로, ‘온전한 빛’, ‘전체를 비추는 빛’, ‘세상을 밝히는 빛’을 의미합니다. 2025년, ‘빛’이라는 단어는 우리사회에서 큰 상징성을 갖습니다.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불의에 맞서며 광장에서 흔들렸던 응원봉의 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감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장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외쳤던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와 힘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연대가 서로를 감싸고, 경청하고, 존중하였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그 응원봉에서 퍼져나간 빛은 감격이었고, 그 빛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장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며 중요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이라 해도, 작은 빛 하나만으로도 어둠은 깨어집니다. 사회 속의 어둠도, 공동체 안의 불의, 불신, 폭력, 불평등 등은 결코 그렇게 포장되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본질은 예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고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비추면 됩니다. 그렇게 어둠은 물러가고, 곳곳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빛은 따뜻함을 줍니다. 얼어붙은 땅도 빛 앞에서는 녹아내립니다. 사회 곳곳에는 빛의 따뜻함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얼어붙었던 관계, 단혀 있던 마음들이 빛을 통해 녹아들고, 다시 연합과 하나됨으로 이어 집니다.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얼음장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빛을 품고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 따뜻함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합니다. 빛은 생명을 상징하고, 어둠은 죽음과 사망을 나타냅니다. 빛이 비취질 때 생명이 돌아나고 자라나며 열매를 맺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생명체는 빛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빛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 좌절하고 넘어진 이들에게 비취지는 빛은 소망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예수님의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이들에게 등대처럼,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신호탄의 불빛처럼 예수님의 빛은 절망 가운데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튼튼히 세울 때, 우리 안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빛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1) 

민주주의와 공동체 회복 위한 YWCA



한국YWCA연합회는 4월 24일(목) 서울YWCA 대강당에서 '2025 YWCA 전국회장단연수'를 개최하였다. 올해 전국회장단연수는 연합회와 회원YWCA 회장, 부회장 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모색하고 지역운동 방향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는 예배에서 정미현 목사(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가 '엠마오와 예루살렘 사이의 변증법'을 제목으로 한국사회에서 YWCA와 회장단의 사명을 주요 메시지로 전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불의와 모순이 지배하는 듯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독 정신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기본정신과 실천을 함양하고 도모하는 일에 YWCA가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공석기 연구교수(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한국사회 현황과 시민사회의 역할: 지역회복과 풀뿌리세계시민'을 주제로 YWCA가 각 개인들이 시민성을 갖춘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율, 초고령화, 개인화, 사회적 불평등 및 양극화, 기후위기, 기후재난 등 안팎의 위협과 지역소멸 위기 상황 가운데 시민사회운동의 '비판적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개인화 즉 이기적 개인주의로 무장한 개인 혹은 주인을 '시민성'을 갖춘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 구축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명신 소장(비영리경영연구소)은 '목적 중심의 거버넌스와 YWCA 회장단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YWCA가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공동체로서, 목적 중심의 거버넌스를 통해 사명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리더의 역할을 제시했다. YWCA 사명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재정, 경영), 활동(사업), 관계(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한국YWCA가 조직의 목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직 재구조화를 통해 거버넌스 대전환을 이룬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YWCA 회장단이 권한을 위임받은 청지기로, 단체의 사명을 중심으로 명확한 비전을 책임감 있게 실행하는 '목적 중심의 거버넌스 리더십'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격려했다. 한편 한국YWCA는 지난 3월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영남지역 산불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회원YWCA와 한국YWCA연합회, 시민들이 총 9천4백만 원을 모금했다. 이날 <안동 산불 피해복구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이 이순향 안동YWCA 회장에게 성금 9천4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 강주영 안동YWCA 사무총장이 '안동산불 피해복구 기금 사용계획'을 발표하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살리는 데 YWCA의 역

할을 다하겠음을 밝혔다.

YWCA전국회장단, 대선외제 퍼포먼스 진행

또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YWCA 대선외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연합회 회장단이 '탈핵기후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보건의료', '돌봄', '시민사회 활성화' 총 6개 부문의 YWCA 정책외제를 담아 '21대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YWCA 회장단이 유권자 요구서를 들어보이는 퍼포먼스를 통해 YWCA 유권자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YWCA 회장단은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정의·평화·생명의 민주주의를 회복해나갈 것을 촉구하고, YWCA가 시민들의 삶과 사회 변혁을 위해 함께 행동해나갈 것을 선포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시대적 상황에 공감하며, 이 시대에 필요한 가치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었음', '확장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무엇이 문제인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유익했음', 'YWCA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었음' 등과 같은 소감을 나누며, '회장단으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 실천을 다짐하였다.'

한국YWCA 성명서

〈21대 대통령 후보에게 바란다〉 정의·평화·생명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한국YWCA는 지난 103년간 생명과 정의,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과 연대의 역사를 이어왔다. 우리는 시대적 정신을 품은 그리스도인이자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여성들과 시민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와 연대의 발걸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억하며, 억압과 침묵 속에 가려진 여성들을 비롯한 소외된 이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시대적 소명에 응답해왔다.

기후위기와 전쟁, 혐오와 증오, 불평등과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한국 사회는 중요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속한 공동체들 안에서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고, 여성과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생태 환경이 지속 가능하기를 꿈꾼다.

이제 시민 앞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후보자들은 정의·평화·생명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할 중대한 사명 앞에 서있다.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한국YWCA연합회와 전국 50개 지역 YWCA는 탈핵기후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보건·의료, 돌봄, 시민사회 활성화 6개 부문에서 정책의제를 제안하며, 각 후보자들이 YWCA 대선 의제 정책의 목표와 실현 방안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실현해나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21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평등 관점의 기후대응과 탈핵-에너지 전환 체계를 구축하라.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위기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체계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라.

무너진 성평등 추진체계를 세우고 뉴미디어 분야의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성평등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나.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고 다양성의 평화문화를 정착하며,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라.

적대와 혐오가 아닌 평화와 존중의 평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남북 협력 체제를 복원해야 하며, 평화 구축 과정에서의 여성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 시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라.

의료는 국가의 책임이며, 시민의 기본권이다. 시민들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나. 돌봄 기본권을 보장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돌봄은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나. 비영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 연대, 공익적 활동이 존중받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정의·평화·생명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민들의 삶과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함께 행동하며 나아갈 것이다.

2025년 4월 24일

YWCA 전국회장단 연수 참가자 일동

| 특집-YWCA는 교육이다 |

② 회원YWCA 사무총장 연차별 역량강화 교육

+

김미애

(사)한국YWCA연합회 회원Y협력지원부 선임간사

위로와 연대하는 용기 가득한 동역자들

연합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전국 회원YWCA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2025년 회원YWCA 사무총장 연차별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였다. 끈끈한 연대의 장이었던 각 1박 2일의 교육 현장을 파헤쳐본다.

배경 및 필요성

2025년 3월 기준, 회원YWCA 사무총장 경력 3년 미만인 저연차 사무총장 비율이 56%(28명)에 달하였다. YWCA 재구조화 이후 지속가능한 YWCA를 위해 지역운동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실무 총책임자인 회원YWCA 사무총장들의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 YWCA 경험과 인식에 대한 편차가 커진 것이다. 기존에는 회원YWCA 사무총장 대상으로 신입사무총장교육, 1:1 행정훈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권역별/광역시·도협의회별 회의체를 진행하였는데, '회원YWCA 사무총장 역량강화'의 필요성과 안팎의 수요가 일치하게 되어 연합회 회원Y협력지원부와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회원YWCA 사무총장 연차별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각 그룹별 특성

1그룹(1년차)은 올해 사무총장 임기를 처음 시작한 신입사무총장 그룹이며, 2그룹(2, 3년차), 3그룹(4~7년차)은 2019년부터 2024년에 사무총장 임기를 시작한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의 위축, 재구조화 집중교육 진행으로 YWCA 목

적과 정체성 교육이 약화되었던 시기를 공통적으로 경험한 그룹별 특성을 고려하여,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 사무총장의 역할과 사명 이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와 연대를 강화하고자 교육을 기획하였다. 또한 4그룹(8년차 이상)은 1996년부터 2018년에 인준된 고연차 그룹으로 사무총장 경력과 YWCA 활동 경력을 고려하여, YWCA 목적과 사명을 확인하고 사무총장으로서의 비전을 재확인하는 결단 중심의 교육, 무엇보다 네트워크와 YWCA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교육 내용

교육의 주교재는 YWCA 자원·실무활동가 필독 도서인 <연대하는 용기>로 진행하였고, 집필진 전원이 강사로 참여하였다.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사무총장 사명 이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에큐메니컬 운동'(장운재 이화여대 교수, Y아카데미 교육개발 연구TF 위원), 'YWCA 100년의 여정 그리고 연대하는 용기'(유성희 전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Y아카데미 교육개발 연구TF 위원장), 'YWCA 기독교여성시민운동과 크리스천 페미니즘'(이숙진 이화여대 강사, Y아카데미 교육개발 연구TF 위원)의 내용으로 회원YWCA의 세부 사항과 참가자들이 제출한 사전 과제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각 그룹별 '맞춤형'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사무총장의 역할과 사명', '사무총장 네트워킹과 나눔1'(박은실 연합회 사무총장), '사무총장 네트워킹과 나눔2(송록희 연합

회 팀책임)의 내용으로 각 그룹에 맞는 워크숍을 통해 그룹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사무총장으로서의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4그룹은 'YWCA 선배와의 만남 1, 2' 시간을 기획하여 유성희(사)한국YWCA연합회 전 사무총장과 양선희(사)서울YWCA 전 사무총장을 만나 YWCA 사명을 확인하고 YWCA 운

동과 운영, YWCA의 지속가능성과 선배들의 연대하는 용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시간 참가자 소감 나눔과 만족도 평가

무엇보다 참가자들이 교육의 주체자로 매시간 효능감을 가지고

사무총장 연차별 역량강화교육 그룹별 교육 내용

구분	일시	대상	교육 주안점	교육 내용 및 강사
1그룹 (1년 미만 신입)	3.12(수) 10:30 ~ 3.13(목) 13:30 1박2일	고양, 군산, 남원, 대구, 서울, 성남, 세종, 안산, 양산, 여수, 울산, 원주, 진해, 춘천, 포항Y 15명	YWCA 기본 이해와 사무총장 사명 이해 1. YWCA 목적과 정체성 이해 2. YWCA 역사와 운동 이해 - 103주년 한국YWCA 역사 이해 - 변화하는 시민사회와 YWCA 시민운동 방향 이해 - YWCA 기독교여성시민운동과 크리스천 페미니즘 이해 3. YWCA 사무총장 사명 이해와 다짐	1. 하나님 나라와 에큐메니컬 운동(장윤재) 2. 103주년 한국YWCA 역사의 이해,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이해(유성희) 3. YWCA 기독교여성시민운동과 크리스천 페미니즘 이해(이숙진) 4. YWCA 사무총장의 역할과 사명, 사무총장 네트워킹과 나눔(박은실)
2그룹 (2,3년차)	4.16(수) 10:30 ~ 4.17(목), 13:30 1박2일	거제, 광주, 김해, 논산, 대전, 속초, 수원, 안양과 천군포의왕, 인천, 천안, 충주, 하남Y 12명	1. YWCA 목적과 정체성 이해 2. YWCA 역사와 운동 이해 - 103주년 한국YWCA 역사 이해 - 변화하는 시민사회와 YWCA 시민운동 방향 이해 - YWCA 기독교여성시민운동과 크리스천 페미니즘 이해 3. YWCA 사무총장 사명 이해와 다짐	1. 하나님 나라와 에큐메니컬 운동(장윤재) 2. 103주년 한국YWCA 역사의 이해,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이해(유성희) 3. YWCA 기독교여성시민운동과 크리스천 페미니즘 이해(이숙진) 4. YWCA 사무총장의 역할과 사명, 사무총장 네트워킹과 나눔(박은실)
3그룹 (4~7년차)	5.21(수) 10:30 ~ 5.22(목), 13:30 1박2일	강릉, 광양, 남양주, 동해, 목포, 부산, 부천, 순천, 의정부, 익산, 제주Y 11명	1. YWCA 목적과 정체성 이해 2. YWCA 역사와 운동 이해 - 103주년 한국YWCA 역사 이해 - 변화하는 시민사회와 YWCA 시민운동 방향 이해 - YWCA 기독교여성시민운동과 크리스천 페미니즘 이해 3. YWCA 사무총장 사명 이해와 다짐	1. 하나님 나라와 에큐메니컬 운동(장윤재) 2. 103주년 한국YWCA 역사의 이해,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이해(유성희) 3. YWCA 기독교여성시민운동과 크리스천 페미니즘 이해(이숙진) 4. YWCA 사무총장의 역할과 사명, 사무총장 네트워킹과 나눔(박은실)
4그룹 (8년차 이상)	6.11(수) 10:30 ~ 6.12(목), 13:30 1박2일	마산, 사천, 서귀포, 안동, 전주, 제천, 진주, 창원, 청주, 통영, 파주Y 11명	YWCA 목적과 사무총장 비전 재확인 1. YWCA 목적과 정체성 확인 2. YWCA 역사와 운동 속 YWCA 사무총장의 비전 재확인 3. YWCA 네트워킹과 선배와의 만남을 통한 연대의 강화	1. 하나님 나라와 에큐메니컬 운동(장윤재) 2. 만남과 나눔(Before-Now-After)(박은실)

강사진 / 교육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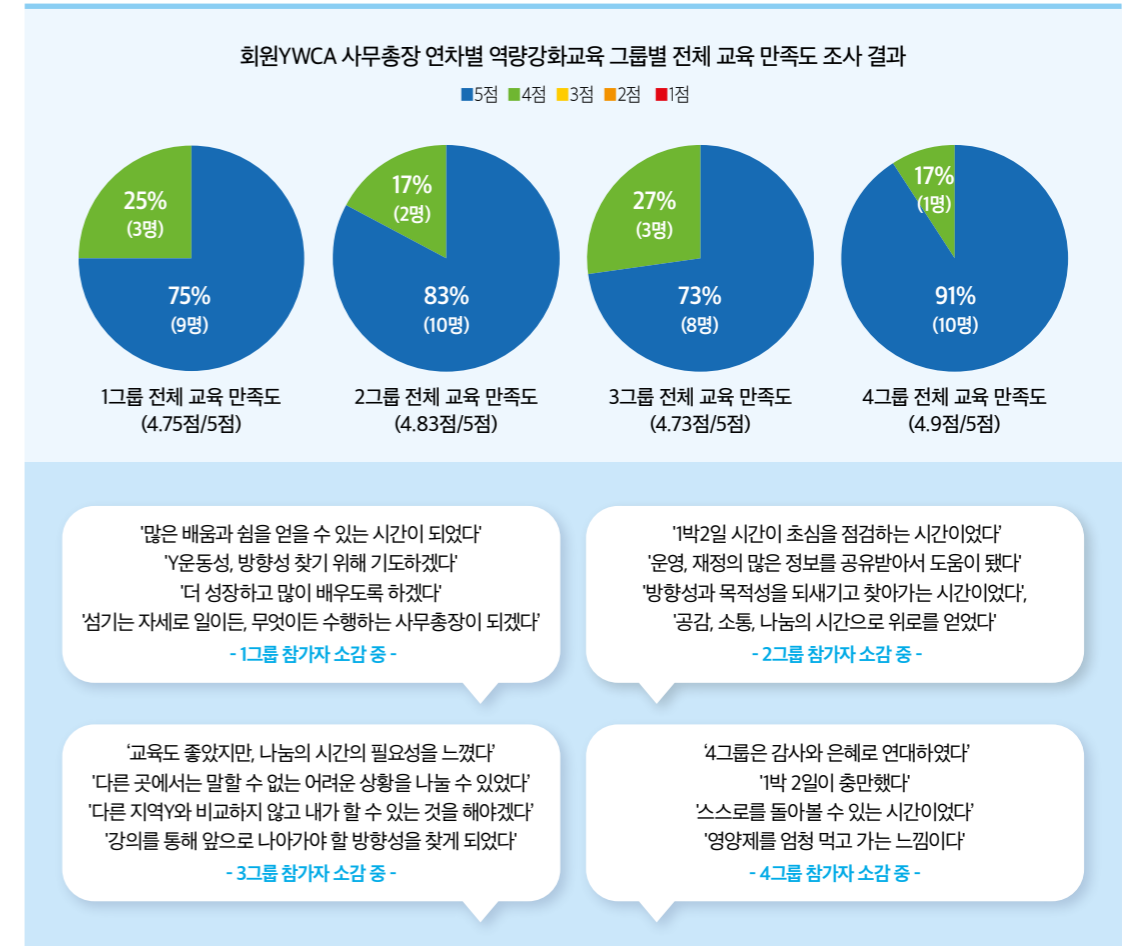
<p>하나님의 나라와 에큐메니컬 운동</p>  <p>장윤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연대하는 용기 저자</p>	<p>YWCA 100년의 여정과 나아가야 할 길/ *YWCA 선배와의 만남</p>  <p>유성희 센터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 연대하는 용기 저자 전 연합회 사무총장</p>	<p>크리스천 페미니즘의 유산과 미래</p>  <p>이숙진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연대하는 용기 저자</p>	<p>*YWCA 지역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YWCA 선배와의 만남</p>  <p>양선희 위원 전 생명비전연구 TF팀 연구위원, 전 서울Y 사무총장</p>	<p>YWCA 사무총장의 역할과 사명/ *Before-Now-After</p>  <p>박은실 사무총장 (사)한국YWCA연합회</p>	<p>사무총장 네트워킹과 나눔</p>  <p>송록희 국장 (사)한국YWCA연합회</p>
--	--	--	--	--	--

*4그룹 교육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작하며 여는 예배 직후 참가자 전원 이 기대를 함께 나누고, 닫는 예배 직전 1박 2일을 돌아보며 소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의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 전국의 동역자들을 함께 위로하며 때로는 박장대소하고 때로는 눈물바다로 은혜와 감사, 다짐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강의 종료 이후 각각의 별과 전체 교육에 대한 회원YWCA 사무총장들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5점 만점 중 4개 그룹 전체 평균 4.8점으로 참가자 전원이 이번 교육에 '매우 만족하고' '만족했다'고 답변하였다.

연대하는 용기와 하나님 나라

<2025년 회원YWCA 사무총장 연차별 역량강화교육>은 지역은 동강화 지원계획(2025-2027년) 중 실무활동역 역량강화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연차별 4개 그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기획하여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1박 2일의 교육을 통해 어렵고 힘든 하나님나라 운동을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며 감당하고 있는 회원YWCA 사무총장들에게 전국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위로와 연대하는 용기로 가득 남아 있길 바라본다. 또한 우리의 연대하는 용기가 확장되어 YWCA가 지속가능한 기독교여성시민운동단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시대의 부름을 각 지역과 한국 사회, 나아가 전 세계에서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연대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다함께 손잡고 마음 모아 연대하는 YWCA 신입이사



2025 YWCA 신입이사교육이 6월 19일(목) 서울YWCA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YWCA 신입이사교육은 기독교여성시민운동단체로서의 YWCA 목적과 정체성과 이사의 역할과 사명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17개 회원YWCA 총 31명의 신입이사(광주, 남원, 동해, 서울, 성남, 세종, 속초, 안산, 안양과천군포의왕, 원주, 익산, 인천, 전주, 춘천, 파주, 평택, 하남YWCA)가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연대하는 용기'를 주제로 '하나님 나라와 에큐메니컬 운동'(장윤재 이화여대 교수, Y아카데미 교육개발 연구TF 위원), 'YWCA 기독교여성시민운동과 크리스천 페미니즘'(이숙진 이

화여대 강사, Y아카데미 교육개발 연구TF 위원)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의미와 실천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았다. 또한 '목적 중심의 거버넌스와 YWCA 이사(회)의 역할'(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강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 중심의 거버넌스를 함께 생각해보고, '이사회 역할과 책임' 워크숍으로 이사회와 사무국이 무엇을 공유하고 위임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입이사들은 이번 교육 주제인 '연대하는 용기'를 몸으로 표현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각 지역사회에서 정의, 평화, 생명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걸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YWCA 신입이사교육 소감문

협력과 신뢰가 YWCA의 힘! 겸손히 배우며 함께하겠습니다

김경희 (사)동해YWCA 신입이사

YWCA는 전세계적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여성운동 단체이며, 정의, 평화, 생명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권익향상, 기후위기 대응, 청소년 교육, 돌봄과 복지, 평화운동 등 시대의 필요에 맞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사는 단순한 행정적 역할을 넘어서 YWCA의 정신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중요한 사명을 지닌 존재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회원과 실무자들과의 소통, 비전 공유가 매우 중요함도 배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며, 지역의 필요를 민감하고 듣고 YWCA의 가치로 해석하

여 실천하는 것이 이사의 중요한 소명임을 느꼈습니다.

여성, 아동, 청년,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 동참하며, 이사 간, 실무자 간의 협력과 신뢰가 곧 YWCA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겸손하게 배우며 함께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갈등보다 소통을, 경쟁보다 협력을 우선하는 YWCA의 문화 안에서 따뜻한 리더십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사로서의 역할을 통해 저자신도 배우고 성장하며 그 성장이 지역 YWCA와 공동체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역 현장에서 실천하고 연대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공지숙 (사)춘천YWCA 신입이사

YWCA 신입 이사 교육을 다녀온 후, 제 마음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기도공간은 저 개인의 내면을 돌아보며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신앙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역사관에서는 사진을 보며 여러 사건과 활동을 통해 YWCA가 여성의 권리 신장과 사회복지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YWCA의 목적문을 통해,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고, 그동안의 기독교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연대하는 용기』라는 책을 중심으로 진행된 강의의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함께 연대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

임을 인식하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메시지가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YWCA의 이사로서 여성들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힘쓰고자 합니다. 특히, 여성들과의 연대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YWCA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사가 되고자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과 연대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제가 YWCA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YWCA의 비전과 가치에 깊이 공감하며 여성과 청년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는 YWCA의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진심으로 임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YWCA와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특집 |

④ YWCA 신입실무활동가교육

+ 최유주

(사)한국YWCA연합회 아카데미팀 간사

지역과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YWCA 신입실무활동가교육이 5월 20일(화)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16개 회원 YWCA(고양, 광양, 남양주, 남원, 대구, 대전, 수원, 목포, 서울, 안산, 의정부, 인천, 제주, 창원, 청주, 포항YWCA)와 연합회에서 총 33명의 신입실무활동가가 참석했다.

첫날에는 장윤재 교수의 <하나님 나라와 에큐메니컬 운동>, 이숙진 강사의 <YWCA 기독교여성시민운동과 크리스천 페미니즘>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박은실 연합회 사무총장과 <YWCA 활동가 만남> 시간도 가졌다. 이어 <YWCA 운동이해>에서는 연합회

청년활동가들이 강사로 나서, 탈핵기후생명운동(김수진 팀책임), 성평등운동(추은지 간사), 국제, 평화-통일운동(유은비 간사), 청소년운동(이은혜 간사)을 주제로 활동을 공유하고, 기획 배우기-한 컷 강의(김수진 팀책임)로 운동 기획 방법을 소개했다.

둘째 날 참가자들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방문하고, <제170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직접 참여하여 여성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연대의 장을 경험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전YWCA 김민지 활동가는 연대 발언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YWCA 생명, 평화, 정의의 가치 회원과 이웃에게 사랑으로 전할 터

박선미 | 목포YWCA희망지원센터 팀장

YWCA가 좋아 처음 아르바이트로 인연을 맺은 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3년간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조직과 활동에 대한 애정을 키웠고, 자연스럽게 정식 활동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신입실무활동가 교육에 참여하면서, 익숙하다고만 생각했던 YWCA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쌓아온 것들과는 또 다른 깊이로, YWCA의 가치와 방향을 돌아보고 다시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신입'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YWCA의 본질과 운동 정신을 깊이 배우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YWCA가 지켜온 '생명, 평화, 정의'의 가치는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저 또한 회원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관계를 통해 운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접했던 YWCA 운동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생명, 평등, 청년, 평화통일'이라는 중점 운동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단순히 활동가를 넘어 진정한 운동가로서 나아가갈 방향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직면한 사회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YWCA가 실천해야 할 역할과 운동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YWCA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는 여성 권리 증진과 평화, 정의를 위한 실천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9년 차 활동가로서 이번 신입활동가 교육은 제게 초심을 되새기며, 다시 한 번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YWCA 운동이 오늘날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더욱 강력하고 의미 있게 나아가갈 수 있도록, 제 마음과 힘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연대의 힘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번 신입활동가 교육을 추진해 주신 한국YWCA연합회와 교육이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깊은 마음에 감사드리며, 그 기대에 부응하는 YWCA활동가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역과 현장에서 삶의 문제 나누고 작은 실천으로 YWCA운동 시작!

윤정민 |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YWCA 신입활동가 교육에 참여하면서 YWCA라는 조직과 운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제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신입 실무활동가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강의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YWCA가 10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왔는지, 이번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첫날 장운재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와 에큐메니컬 운동' 강의는 YWCA가 신앙을 바탕으로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대마다 어떤 연대와 실천을 이어왔는지 되돌아보게 해주었습니

다. 이어진 'YWCA 기독교여성시민운동과 크리스천 페미니즘' 강의에서는 YWCA의 정체성과 운동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저 역시 제 자리에서 어떻게 이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YWCA 운동 이해' 시간에는 탈핵기후생명, 성평등, 국제 평화, 청소년운동 등 각 주제별 강의와 실무자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현장의 고민과 운동 과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저도 실무활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누구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진행된 명동 문화탐방과 세종호텔 집회 참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YWCA의 역사적인 공간을 걸으며 선배들이 지켜온 가치를 몸으로 느껴보니, 지금의 제 활동도 그 흐름 위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박은실 한국YWCA 연합회 총장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활동가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관람하고 수요시위에 참여하면서 YWCA가 여성인권과 평화를 위해 싸워온 지난 역사가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기 전에는 활동가라는 역할이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제가 서 있는 지역과 현장에서 회원들과 함께 삶의 문제를 나누고,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YWCA 운동의 시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알찬 시간 덕분에 배움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준 동료 활동가 여러분과 다시 만날 기회를 기대하며, 이번 경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YWCA 목적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활동의 의지를 다진 시간

정니은 | (사)고양YWCA 간사

올해 3월부터 (사)고양YWCA에서 신입활동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교육이 시작되기 전 한국YWCA가 펼치는 여러 중점 활동을 지역에서 진행했습니다. 3.8 세계여성의날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후쿠시마핵사고 14주년 행진, 기후영화제, 세월호 시민참여 행사 시 낭송, YWCA의 료공론플랫폼 시민대화모임 참여, 고양시성평등기금으로 운영하는 기후위기와 성평등 관련 프로젝트,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수요시위 참여, 21대 대선 유권자캠페인 진행, 지역 환경문제 연대 활동, 평화대회 연대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3월 입사 후 내부에서 실시하는 신입활동가 교육을 받고 바쁘게 중점

활동을 해왔지만 내가 진정 YWCA의 목적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 2025년 YWCA 신입실무활동가교육을 통해 그 의문점들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사전 숙지 자료로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YWCA아카데미-YWCA의 이해' 교육 내용은 신입활동가일 때뿐만 아니라 활동하면서 보고 또 보아도 도움이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고양시성평등기금으로 성평등 관점으로 보는 기후위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YWCA아카데미의 탈핵기후생명운동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 중 UN에서 제안하는 첫 번째 행동인 '기후위기 소문내기'라는 내용에 아이디어를 얻어 프로젝트를 참여자들에게 공유하여 '기후위기 소문내기'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전 과제로 도서 '연대하는 용기'를 접했는데 YWCA 활동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꼭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기독교의 본질인 '환대를 더 잘 알고, 이 세상에 구원되어야 할 정의, 평화, 생명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연대하는 용기'가 생길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크리스천 페미니즘은 성차별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멸시와 배제, 차별과 억압에 대항하기 위해 차별의 원인을 모색하는 사상이자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YWCA에서 전개하는 운동의 시작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대하는 용기' 책의 공동 저자인 장운재, 이숙진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되어 책으로만 접하기엔 막연하고 어려웠던 부분이 명확해지기도 했습니다.

잘 짜인 커리큘럼과 연합회 박은실 사무총장님, 운동 담당 활동가들의 강의는 너무 알차고 '기획 배우기' 강의 내용은 지역으로 돌아가 빨리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탐방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들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임을 알게 했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연대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화'라는 말을 입밖으로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마음의 울컥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최근 고인이 되신 이옥선 할머니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일본대사관 앞으로 이동하여 제70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교육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25년 신입활동가교육은 짧은 시간에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었기도 했고, YWCA의 목적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활동의 의지를 다지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평화를 향한 Y-틴의 발걸음

Pilgrimage to Hiroshima 2025



평화기념공원을 둘러보고 있는 히로시마 순례 참가자들.

2025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히로시마 순례』에 2024 Y-틴 전국협의회 회장단인 이은우 회장과 강경화 부회장이 참가했다. 이번 순례에는 일본(교토, 오사카, 니가타, 도쿄, 히로시마, 연합회)과 중국(상하이, 광저우, 남경)에서 모인 총 33명의 YWCA 회원이 함께했다.

1971년부터 시작된 이 순례는 동아시아YWCA 회원들이 모여 평화와 인권,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 성찰하는 자리다. 올해 Y-틴은 중점운동 주제가 '일본군 성노예제'인 만큼 이번 순례를 통해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더욱 깊이 나누고자 했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두 차례 사전모임을 갖고 히로시마의 역사와 한국의 평화 현안에 대해 준비한 뒤 현장을 찾았다.

순례 첫날에는 GeNuine 공동 설립자 도코나 유키가 핵무기와 젠더 불평등의 연결점을 짚었고, 참가자들은 평화기념공원을 함께 둘러보았다. 공원이 리모델링되면서 일본의 가해 역사가 희미해졌다는 점에 깊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러한 역사 왜곡에 문제의식을 갖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일본 시민들의 존재에 위로를 받았다. 이어진 저녁 시간에는 각국 참가자들이 자기 소개를 나누고, 서로의 언어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며 긴장을 풀었다.

원폭 피폭자들, 그리고 서로 돕고 지지한 이야기들

둘째 날에는 일본 내 한국인 원폭 피해자 고 이종근님의 이야기와, 해외 거주 피폭자를 위해 오랫동안 애써온 도요나가 케이자



부로님의 증언을 들었다. 일본 정부가 외면한 한국인 피폭자들을 일본 시민, 그리고 히로시마 YWCA가 함께 도왔다는 이야기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후 방문한 기독교 사회관은 전통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모여 서로를 교육하고 돌본 공동체적 공간이었다. 일본인 피폭자와 한국인 피폭자가 서로를 돕고 지지한 이야기 속에서, 참가자들은 시민의 역할과 공동체의 힘을 다시금 되새겼다.

같은 날 오후, 참가자들은 다시 평화기념공원으로 돌아가 한국인 피폭자들의 흔적을 중심으로 공원을 둘러보았다. 가이드를 맡은 일본 시민은 "가해국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태도 속에서 진정한 시민 정신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었다. 저녁 시간 진행된 워크숍에서 이은우 Y-틴 전국협의회 회장과 강경화 부회장은 Y-틴의 중점운동 주제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소개하며, 진정한 평화를 위해 이 문제 역시 국제적인 논의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무기의 비인도성

평화와 연대를 위한 양국의 구체적 실천 논의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평화와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상상했다. 일본 참가자들은 개인의 변화와 노력을 강조한 반면, 한국 Y-틴들은 공동체의 연대를 통한 변화를 제안하며 서로의 관점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운동의 방식과 철학을 배우는 시간도 되었다. 이번 평화순례는 단순한 역사 탐방이 아니라,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는 자리였다. 지리적 경계를 넘어 같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세계 시민의 소중함을 체감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Y-틴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넓은 시야로 평화를 위한 걸음을 이어가길 기대해 본다.

다름을 이해하는 새로운 대화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를 기점으로,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2018년 미투 운동, 2020년 N번방 사건, 그리고 2022년 제20대 대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 한국 사회는 페미니즘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험했다. 일상 속에 페미니즘 언어가 스며들고 확장되었지만, 성평등에 대한 공감은 널리 퍼졌다고 보기는 오히려 '젠더 갈등'이라는 이름 아래 대립과 분열이 더 부각되어 왔다. 그 단면은 지난 겨울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거리에는 여성들의 응원봉이 빛났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청년 남성들이 보였고, 그 간극은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젠더 이슈를 둘러싼 인식의 간극과 사회 내 공론장 부재의 현실을 반영한다. 혐오와 분열이 난무하는 지금, 우리는 찬반을 나누는 논쟁을 넘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안전하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공간

이 필요하다.

갈등을 다루는 안전한 공론장 <세상을 바꾸는 대화>

서울YWCA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기금의 후원을 받아 성차별을 주제로 한 '갈등을 다루는 안전한 공론장 <세상을 바꾸는 대화>'를 기획했다. 먼저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이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슈페이퍼로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차이와 갈등을 다루는 안전한 공론장을 위한 시민대화 워크숍을 운영하며, 실제 공론장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대화 기획자를 양성하고 있다. 이들은 성차별과 관련한 네 가지 주제(전통적인 성 역할과 고정관념,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차별과 혐오, 젠더 기반 폭력, 혐오의 정치화)로 8~9월에 공론장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시민대화 워크숍은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서



참가자 인터뷰

이은우 Y-틴 전국협의회 회장(왼쪽)과 강경화 부회장(오른쪽).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순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경화

히로시마 순례 중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증언과 관련 탐방을 통해 평화기념공원을 다시 찾았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내가 만약 가해국이었다면 이 사실을 더더욱 숨기고 싶었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며 세계에 알리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고, 우리가 왜 평화와 핵과 관련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은우

조별로 모여 하루 동안 각자가 느낀 점과 배운 점은 나는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각자의 언어와 생활 모습은 다 다르지만, 결국 평화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같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핵 문제와 전쟁은 과거의 일이자 교과서 속 지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닥친 현실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공감과 나눔의 자리가 자주 이어진다면, 앞으로 평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례를 다녀온 후, 나에게 생긴 작은 변화가 있다면?

강경화

히로시마 순례를 다녀온 후, 탈핵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YWCA에서 탈핵 시위에 참가했을 때에는 탈핵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순례를 통해 탈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대구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순례 중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정말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은우


평화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평화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고, 앞으로도 당연히 유지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후위기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으며, 평화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례 이후 하루하루를 더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고 기사를 읽으며 친구나 가족에게 설명해 주는 등, 일상 속에서 이야기하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순례를 계기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강경화

도요나가 케자부로 님의 증언을 통해, 합천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합천에 관련 시설이 있는지를 찾아보았고, 그 결과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과 합천 원폭자료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1시간 거리기 때문에, 두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원폭에 대해 더 깊은 지식을 쌓겠습니다. 또한 평화, 탈핵 운동에 참여하며, 하루빨리 평화의, 탈핵이 이루어진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은우

순례를 통해 배운 전쟁, 핵, 평화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저도 순례 전까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 순례를 계기로 여러 나라 청소년들과 평화와 다양한 이슈에 대해 대화해보고 싶습니다. 저부터 더 관심을 가지고 서명운동이나 캠페인에 참여하며 탈핵 운동에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작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며 평화를 지키고 그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딛는 이 걸음, 내일 평화를 연다



한국YWCA는 해방과 분단 80년, 정전협정 체결 72년을 맞아, 지난 6월 6일(금) 오전 11시 30분 임진각 평화의 종 앞 광장에서 열린 'DMZ생명평화순례단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대회'에 함께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종교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행동'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번 평화행동은 5월 19일(월)부터 6월 6일(금)까지 3주간 진행된 'DMZ 생명평화순례'와 함께 이어졌다.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7대 종단 성직자들의 순례는 분단의 현장인 DMZ 385km를 따라 걸으며,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여정이었다. 6월 6일, 순례의 마지막 날에는 파주 장산전망대에서 임진각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평화의 뜻을 모았다. 임진각 평화의 종 앞 광장에서 진행된 6.6 한반도 평화대회는 '적

대를 멈추고 평화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DMZ 생명평화순례단의 인사와 발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의 환영사와 대표회장의 평화 기원,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대표단체의 연대사,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 메시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일 파주시장의 연대사, 국제 파트너단체들의 연대 메시지, 평화 퍼포먼스팀 '레츠피스'의 타악 공연, '참좋다'의 노래 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국YWCA는 한반도평화행동의 공동대표단체로서, 이날 행사의 기획과 진행에 함께했으며, 당일 오전 9시 30분 장산전망대에서 시작된 '평화순례'에 이어, 11시 30분부터 열린 '한반도 평화대회'에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YWCA를 대표해 홍유미 대전YWCA 회장이 연대사를 낭독하였다. 다음은 평화를 향한 시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대사 내용의 일부이다.


을YWCA 마루에서 진행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신청서에서부터 젠더 이슈에 대한 깊은 관심과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세대간 젠더 인식의 차이, 혐오와 역차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부재, 페미니즘에 대한 낙인, 청년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서, 그리고 대화 자체를 가로막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문제들을 짚었다. 이들은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이해와 공감의 가능성을 찾아가자 한다. 또한 안전하고 존중하는 대화법을 배우고, 교육 현장이나 공동체에서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냈다.

젠더 이분법 프레임 넘어 함께 나아가자

시민대화 워크숍의 첫 화차는 한림대학교 신경아 교수의 '성차별의 이해와 갈등을 넘어서는 대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신경아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이 단순한 성 대립이 아니라, 성평등 요구에 대한 백래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반페미니즘은 청년 남성의 경제적 불안과 불만을 왜곡해 정치화·시장화하며, 극우 담론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청년 여성들은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외치며 연대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이분법적 프레임을 넘어서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젠더 정의에 대한 성찰, 그리고 새로운 연대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는 젠더를 갈라치기 위한 수단이나, 평등한 삶을 함께 만드는 공간이어야 하며, 갈등을 넘어 연대의 주체로 함께 성평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7월 3일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권오현 대표와 전세현 시민대화팀 파트장이 함께 '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권오현 대표는 한겨레신문사와 공동 기획한 '한국의 대화'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감과 존중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결론'에 집중하는 공론장을 운영해 왔지만,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 문제들은 빠른 결론보다 충분한 경청과 존중, 포용과 연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상호 존중을 경험할 수 있는 시민 대화의 장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은하투

표'를 통해 다양한 질문에 응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짝을 이루어 대화를 나눴다. 이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안전하게 마주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갈등의 이면에 있는 오해, 감정, 권력 구조 직시하고 다음을 이해하려는 새로운 대화의 감각 일깨워

워크숍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그동안 '젠더 갈등'이라는 말로만 묶여 있던 경험의 결들을 나누며, 갈등의 이면에 있는 오해, 감정, 권력 구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에서 생기는 불편함을 어떻게 넘어서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의 경청과 표현,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공감을 실천하고자 했다. 워크숍은 참여자들에게 갈등을 회피하거나 이기려는 방식이 아닌, 다음을 건디고 이해하려는 새로운 대화의 감각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고 있었다. 우리는 두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고 갈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연대'를 통해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젠더 연대는 단지 여성과 남성의 협력만을 뜻하지 않는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나 특정 사회 현상에 휩쓸리기보다, 우리 시대의 평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젠더 갈등'은 덜 심각할 수도 있고, 설령 심각하더라도 대화의 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공론장을 위한 우리의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7월 10일과 17일(목) 저녁 7시, 서울YWCA 마루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안전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강의와 실습이 이어진다. 이후 8월과 9월에는 성차별을 주제로 공론장을 열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안전한 공간에서 의견을 나누고, 경청하며,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공론장이 우리 사회에 연결과 회복의 언어를 심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해방 80년, 식민 지배의 사슬에서 벗어난 이 땅의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린 지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평화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분단 80년, 냉전의 회오리 속에 두 동강 난 채 아직도 서로 총을 겨누고 적대하고 있는 이 땅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몸부림쳐 온 세월이 80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DMZ생명평화순례단이 휴전선의 동쪽 끝자락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 DMZ를 따라 385km를 걸어 오늘 이곳 파주 임진각까지 왔습니다. 7대 종교 성직자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끔찍한 기억으로 고통받은, 분단의 시간 속에 희생된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걸었습니다. 실탄사격 훈련으로 포연이 멈추지 않는 말뚝인 비무장지대를 비무장으로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5월 27일 평화 활동가들이 '평화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곳까지 왔습니다. '평화의 배'는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에도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한반도의 젓줄, 한강 하구를 지났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바다에 전쟁의 먹구름이 점점 더 짙게 드리우고 분쟁의 파도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큰 평화의 바다를 뜻하는 태평양이 참된 평화의 바다, 우애와 협력의 바다가 되게 하소서.

전국 각지로부터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무력은 무력을 부르고 적대는 적대를 낳습니다. 우리는 북한 전체 GDP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매년 수많은 군사훈련을 하고 있지만 평화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려 합니다. 평화가 바로 길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만 한반도 주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아무런 제도장치 없이 치닫는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적의로 가득 찬 확성기 방송이 밤낮으로 지속되고, 실전을 불사하는 군사훈련도 반복되는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통 수단도 없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호소합니다. 이 위험천만한 적대행위를 우선 멈추십시오.

서로를 미워하고 제압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만큼을 화해와 협력을 위해 투자한다면 한반도와 세상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무기를 사들이고 전쟁을 준비해 온 비용과 역량을 대화와 협상에 집중하면 한반도 주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땅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주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를!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2025년 6월 6일

DMZ평화순례단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대회 참가자 일동



“평화는 기다림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분단의 80년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이 길을 곳곳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발자취 위에 오늘 우리의 걸음이 놓여 있습니다.

... 평화는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연령, 젠더, 지역, 종교 등을 넘어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 없이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 오늘 우리가 내딛는 이 작은 걸음은 내일의 평화를 엮습니다.


청소년이 전쟁이 아닌 공존의 언어로 미래를 배우는 사회,

청년이 서로를 향해 총이 아닌 손을 내미는 한반도,

평화를 이끌고 지켜온 여성들이 더 이상 배제되지 않고

중심에 서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고양, 논산, 대전, 부천, 성남, 속초, 안산, 안양과 천군포의왕, 인천, 진주, 파주YWCA 등 11개 회원YWCA와 한국YWCA연합회에서 총 110여 명이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과 실천의 의지를 함께 나누었다.

한반도 평화대회에 함께한 모든 이들은,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 더 이상의 전쟁과 희생이 없기를 기도했다. 서로를 미워하고 제압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만큼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애쓰기를 다짐했다. 무기를 사들이고 전쟁을 준비해 온 비용과 역량을 대화와 협상에 집중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새 정부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며,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나아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되새겼다. 그래서 한반도 주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염원했다. 

인권, 평화, 그리고 이바쇼 居場所, safe space



다양한 우리가 만나 함께 만드는 안전한 공간 YWCA. #2025한일YWCA협의회

2025년 제12회 한·일YWCA협의회는 일본 도쿄 쇼난국제마을센터에서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한국YWCA에서는 연합회 조은영 회장, 이은영 부회장, 박은실 사무총장, 박윤애 Y-틴위원회 위원장, 반혜영 창원YWCA 사무총장, 이신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 유은비 국제협력부 활동가, 그리고 라이브러리 티티섬 관장이자 Y-틴위원회 조은정 위원까지 총 8명이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일본YWCA 마리 사사베 부회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2025년 제12회 협의회는 'YWCA가 청소년·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란? - 인권, 평화, 그리고 이바쇼(居場所, safe space)'를 주제로, 안전한 공간의 조건과 가능성을 양국의 관점에서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주제는 세계YWCA가 제안한 글로벌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여성청년(young women)과 청소년(girls)을 위한 안전한 공간(safe space) 마련을 공동 과제로 제시한 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협의회는 국가별 보고, 강의 및 소그룹 워크숍, 그리고 양국 공동의 실천과제를 수립하는 액션플랜 수립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요코하마YWCA의 실천 사례와 사쿠라모토 지역의 교회 기반 공동체 탐방도 포함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일본YWCA는 국가보고에서 최근 개정된 성매매방지법을 포함한 여성 관련 법 제도의 변화와 종전 이후 여성·인권 침해 사례들을 돌아보며, 왜 지금 일본 사회에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활동보고에서는 지역별 YWCA에서 운영 중인 안전한 공간 실천 사례들을 공유했다.

안전한 공간, 현장의 실천부터 조직구조 변화까지

한국YWCA는 국가보고와 각기 다른 층위에서 안전한 공간을 고민한 세 가지 활동 사례를 통해 우리의 경험을 나누었다. 각 현장의 실천부터 YWCA 내 실질적 조직구조의 변화까지, 발표 주제들은 이바쇼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국가보고에는 유은비 국제협력부 활동가가 발표자로 나서, 한국 사회에서 '안전한 공간' 개념이 형성되어온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소개했다. 일제강점기와 분단, 군사독재 시기를 거치며 여성과 청년이 반복적으로 국가와 사회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던 경험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짚었다. 오늘날에도 청년과 여성은 공적·사적 공간을 넘나들며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일상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과 여성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직접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낸 경험은 발표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주목되었다.

강남역 추모, #MeToo운동, 여성 청소년과 청년의 응원봉과 핫팩, 생리대, 간식의 나눔으로 만든 연대의 광장은 안전한 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권력과 언어, 정치성과 맞닿아 있는 개념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한국YWCA는 정책 제안과 청년이사제도 등 조직 내부 변화 모두를 통해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청소년이 안전한 공간, 스스로 구성하고 직접 만드는 경험

활동 보고에서 서귀포YWCA는 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머물고 참여하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은 단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공간을 구성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경험으로 연결된다. 한편, 디지털 성폭력 예방 사례를 계기로 성인지 감수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보호자 협력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신선 총장은 청소년이 안전한 공간을 직접 만들어가는 경험의 중요성과 함께, '놀 수 있는 권리, 쉴 수 있는 공간, 믿고 관계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청소년 삶의 기본 조건임을 강조했다.

창원YWCA의 활동보고에서는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실천이 소개되었다. 청년 여성들이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시도했다. 청소년 활동으로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활동 전반을 주도하며 경험을 확장시키는 '키다리학교'와 기후위기를 주제로 교류 활동과 국제 실천을 진행한 '드림십(Dreamship)'이 소개되었다. 반혜영 총장은 청년과 청소년이 자기 존재를 지키며 주제로 설 수 있도록, 자율성과 관계 기반의 참여 경험을 확장하는 이바쇼를 만들어갈 것을 밝혔다.

일상 속 여행지 같은 공공 공간으로서 티티섬 사례

이어 특별 세션 형식으로 청소년 중심 공공 도서관 '라이브러리 티티섬' 사례를 나누었다. 티티섬의 관장, 조은정 위원은 청소년이 학교, 학원, 집 사이의 '사이 시간' 속에서 편안히 머물며, 자유롭게 쉬고 탐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일상 속 여행지 같은 공공 공간으로서 티티섬을 소개했다. 물리적 공간 제공을 넘어, 관계 맺음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 설계, 이용자 주도적 참여, 운영자와의 신뢰 형성 등 공간을 살아 있는 '장'으로 만드는 실천이 공유되었

다. 이러한 운영은 자기결정권, 다양성, 공공성, 안전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바쇼의 의미를 강조했다. 조 위원은 "도서관이 누구에게나 비밀 언덕이 되길 바란다"며, 완벽한 정답이 아닌,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의 중요성을 전했다.

여성이 만들어가는 안전한 공간

일본YWCA 참가자들은 각자의 활동 현장에서 경험한 과제들을 바탕으로, 이번 협의회를 통해 서로의 실천을 배우고 싶다는 기대를 전했다. '여성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안전한 공간의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 싶다는 바람, '청소년이 평화와 인권의 활동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탐색하고 싶다'는 목소리, 그리고 오랜 활동 안에서도 안전한 공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성찰할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한국YWCA 참가자들 역시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청년과 청소년의 자립과 회복을 지지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실마리를 찾았다. 협의회 준비 과정에서 나는 대화들은 단지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넘어서, YWCA 내부의 결정 방식과 조직 문화를 돌아보게 했고, 누구의 관점이 반영되고, 어떤 관계가 신뢰를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의 출발점을 그려보고, 각자의 현장에서 새로운 실험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올해는 한국의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다. 한·일YWCA협의회가 이 시기에 열린 것은 더욱 뜻깊은 일이다. 양국의 YWCA가 함께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고민하고, 공동의 실천을 모색하는 과정 자체가 오늘날 평화를 향한 연대의 실천이자 기쁨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참가자들은 '이바쇼'를 관계 기반 신뢰, 제도적 안전, 문화적 지지로 확장하며, YWCA 조직 안에서 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공간 실험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확인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실험이 각자의 현장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공론의 장

최근 우리 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히 투표를 넘어, 시민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숙의하며 사회적 의제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공론장은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토대이자, 시민운동의 한 축으로서 점점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공론장은 다양한 경험과 의견이 모여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는 협력의 공간이며, 각자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는 장이다.

<YWCA공론플랫폼> 오픈은 앞으로 한국YWCA 운동이 시민들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함께 정책 대안을 고민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의 장으로서 첫출발점이며, 그 시작을 여는 마중물이자, 새로운 변화를 향한 디딤돌이다.

시민은 정책 논의의 ‘소비자’ 아니라 ‘주체’

YWCA가 공론장을 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었다. 의사 수 확대, 필수 의료 강화 등 핵심 정책을 두고 벌어진 대립은 의료공백을 야기하며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극대화했다. 시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병원 예약을 취소하거나 필수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은 주목받지 못했고,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주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YWCA는 시민이 정책 논의

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나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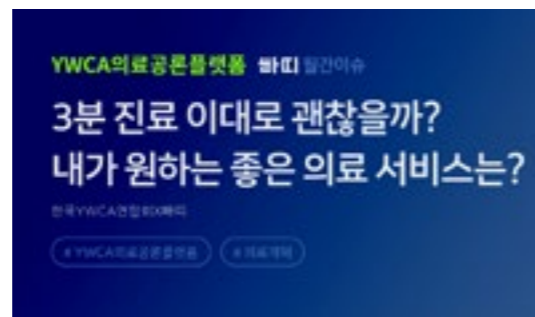
의료는 단순한 서비스 아니라 ‘공공재’로서 모두의 권리

그러하여, 첫 공론장 주제를 ‘의료’로 정했다. 건강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며, 가장 보편적이고도 절실한 사회적 의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료정책은 철저히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왔고,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다. 한국YWCA는 의료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재’로서 모두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YWCA의료공론플랫폼을 시민참여형 ‘협력적 거버넌스’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제1차 YWCA의료공론플랫폼, ‘3분 진료 이대로 괜찮을까?’

제가 원하는 좋은 의료 서비스는?

YWCA의료공론플랫폼 첫 오픈은 4월 23일(수) 오후 3시 온라인 줌으로 ‘3분 진료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는 좋은 의료 서비스는?’을 주제로 열었다. 사전 빠띠플랫폼 온라인투표하기에 7개의 질문과 도움이 되는 읽을거리를 올려 이슈에 대한 생각과 내용을 학습하도록 돕는다. 이때 투표에 대한 의견은 찬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내 의견이 전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색으로 표현된다. 첫 시민 은하투표에는 206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33명이 온라인으로 시민대화모임에 참여했다. 시민대화는 1:1 별별대화, 소그룹 토론, 전문가 발제 등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이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설계했다.

참여자들은 시민대화모임에서 병원 이용 중 느꼈던 불편함, 좋은 진료에 대한 기준, 진료 접근 시 가장 큰 걱정거리 등을 공유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충분한 설명’, ‘신뢰’, ‘공감을 좋은 진료의 핵심 가치로 꼽았다. 소그룹 토론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공공 의료 부족 문제, 긴 대기 시간과 과도한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났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 부재가 현재 의료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환자가 주체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책 제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시민대화모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7가지 사전투표에 대한 내 생각을 나타낸 은하투표의 전후 결과 변화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 질이 향상될까?’라는 질문에 대화 시민대화 모임 전에는 43%가 ‘아니다’라고 응답했으나, 시민

대화 후에는 그 비율이 63%로 증가했다. 이는 시민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 의견을 접하며 생각을 확장하고 구체화해 다른 의견을 수용해간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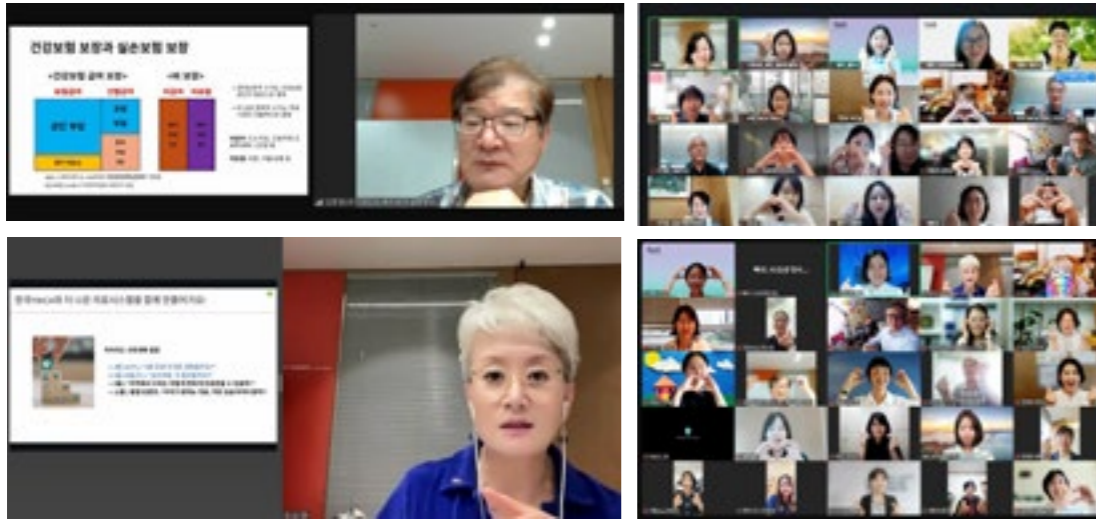
제2차 의료공론플랫폼, ‘실손보험, 꼭 필요할까요?’

이어 제2차 의료공론플랫폼은 6월 18일(수)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실손보험, 꼭 필요할까요?’를 주제로 진행됐다. 사전 은하투표에는 125명이 참여했고, 시민대화에는 27명이 함께했다. 김종명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는 발제를 통해 실손보험의 태생적 한계와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원래 건강보험의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며, 보험료 인상과 비급여 남발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참여자들은 실손보험의 장단점과 실제 사용 경험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일부 참여자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 진료나 보험사와의 갈등 사례를 이야기하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실손보험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산정특례 미적용 환자의 사례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실손보험료가 통합된 건강보험료로 전환된다면 시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이 주도하는 성평등 솔루션



YWCA의료공론플랫폼 1차, 2차 시민대화 모임 사진.

시민대화 후 투표 결과에서도 참여자들이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대화에서도 은하투표 전후 결과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비급여 치료를 보완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다. 또한, ‘월 납부 보험료는 낮지만 자기부담금이 높은 최신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늘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실손보험에 대한 정보와 구조적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결과로 보인다.

직접 의료정책에 참여하고, 스스로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 도출

YWCA는 의료공론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의료정책에 참여하고, 스스로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도출하도록 돕고 있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 지식을 접하며 생각을 확장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민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의료정책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내 경험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더 선명해졌어요.”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려면 환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이런 공론장이 더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라고 입을 모았다.

시민참여를 통한 의료개혁의 시작점

YWCA의료공론플랫폼은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위해 올해 4회에 걸쳐 시민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제3차 YWCA 의료공론플랫폼 시민대화는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9월 24일(수)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제4차 시민대화는 11월 27일(목) 한국YWCA연합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의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론장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한 장기적인 의료개혁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YWCA는 의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공론장을 열어갈 계획이다. 

시민의 힘이 위태로웠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민주주의 제도에 따라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역동적으로 달려온 6월이었다.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아갈 것을 믿으며 경남YWCA협의회(사무국: 사천YWCA / 회장 구정화)는 YWCA 본연의 운동에 집중했다. 한국YWCA의 모든 운동은 성인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활동가의 성인지 민감성은 필수적이다. 비록 연차가 오래된 활동가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감수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하물며 실무활동가 교체가 잦은 지금은 우리의 운동 기초가 얼마나 단단한지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성평등 콜로키움, 총 20시간의 교육으로 구성

경남도협의회 9개 YWCA는 성인지감수성 함양과 활동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여성이 주도하는 성평등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6일간) ‘성평등 콜로키움’을 열었다. 주된 내용은 ‘성주류화 도구의 이해를 통한 지자체 성평등 정책 분석하기’ 6회(12시간), ‘성인지감수성 향상’ 특강 1회(2시간), ‘성평등 관점으로 접근하는 YWCA 운동’ 특강 3회(6시간) 총 20시간의 교육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강도 높게 진행됐다.

성인지감수성 길러 우리 사회 권력구조의 작동 방식 찾아내

창원대학교 철학과 윤김지영 교수의 ‘성인지감수성’ 특강으로부터 출발했다. 윤김지영 교수의 강의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새로움이 있었고, 감수성 확장에 도움이 되었다. 성인지감수성이란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세계가 굴러가고 운용되는 방식 안에서 어떠한 권력 구조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훈련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세심하고, 섬세하게 다른 결로 받아들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세계를 이해할 때 이미 남성중심적인 안경이나 렌즈를 끼고 보는 것이며, 그럴 경우 이 세계가 성 불평등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경남YWCA협의회 활동가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들리게 하여, 실제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긴밀하게 파악해내는 감수성이 장착되기를 바라며 교육현장에 모였다.

<기후위기와 성평등>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성은 더 취약해져

3개의 특강은 YWCA 운동과 관련된 주제로 먼저 이윤숙(에코페미니즘연구소 달과나무 연구위원) 강사님의 ‘기후위기와 성평등’이었다. YWCA 탈핵·기후생명 운동의 정당성 확보와 YWCA가 해야 하는 운동의 이유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강의는 기후위기와 성불평등의 관계,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 여성의 목소리 이해와 존중 등 젠더 관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것이었다. 재난의 상황들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미치지 않음과 성별 분리 통계가 없는 젠더데이터 공백은 재난 상황에서 여성들의 삶을 더 위협하게 만든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로 설명했다.

재난과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서 성별 불평등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젠더데이터이다. 또한 여성의 민감성과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는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더 확실히 인식하게 된 강의였다.

실제로 쓰나미와 지진이 많은 인도양 부근 이슬람 국가들은 문화적으로 남성의 동행 없이 여성 혼자 이동하지 못하고, 여성의 의복도 기후 재난에서 민첩한 도피가 어려운 형태여서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는 여성에게 훨씬 크게 다가온다. 우리나라 쪽방촌 사람들의 뜨거운 여름나기 생활은 여러 면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힘들고, 농업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여성 농업인이라 할 정도로 식량 생산에서 여성들이 가장 앞선 일꾼들인데 여성 농업인들은 기후 위기 상황을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치와 YWCA운동>

자치와 창의를 새로운 여성 시민성

YWCA 운동과 관련된 두 번째 특강 주제는 김은경(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강사님의 ‘정치와 YWCA운동’이었다. 12·3 계엄 사태로 국민 주권과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 권한을 통제하려는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되찾고자 애쓰는 한국YWCA의 행보가 지나치게 정치적이 라는 입이라는 회원YWCA 의견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YWCA와 정치’ 관계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강의 내용은 민주주의 위기 상황과 정당의 무력화, 정치 문화와 시민 자유의 중요성,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의 개선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근대 민주주의의 문이 열리며 탄생한 정치적 인간은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는 인간이며, 정치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삶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직결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로의 문을 열었다 해도 여성은 여전히 인간이 아니었으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서 정치적 권리를 갖게 된 것은 20세기에 와서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짚어 주셨다.

김은경 부회장은 YWCA가 지금보다도 더 정치적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파적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자 하

는 YWCA 비전을 정책으로 담아서 제안하고, 그 정책이 정치의 장에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감시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Y는 평등을 일상으로 만든 ‘자치’와 ‘창의’의 새로운 시민성을 발휘하는 여성 시민들을 만나고 만들어야 하며, YWCA 활동가들이 좀 더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활동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YWCA 성평등운동, HOW>

감춰진 성차별과 구조적 불평등 가시화해야

YWCA 운동과 관련된 세 번째 특강은 김은주 소장님(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연합회 위원)의 ‘YWCA 성평등운동, HOW’였다. 지역에서 성평등운동을 더 잘 펼쳐 나가고 싶다는 간단한 강의 요청에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 참석한 활동가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여성 운동과 성평등 운동의 심각한 프레임 전쟁과 현재 상황, 여성정책과 성평등정책의 보편의 언어화와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여성의 권익과 모성보호, 육아와 출산에 대한 정책과 군대, 여성정책 자체를 이념적이라고 폄하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여성의 법 제정자 비율 문제 등을 답아냈다.

그리고 YWCA가 해야 할 일은 우선적으로 여성운동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논의라 했다. 성별 지우기 전략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성별 기반 정책들의 토대를 없애려는 시도들과 성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을 가시화하는 한편 보편의 언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안에 감춰진 성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을 가시화하는 노력이라고 했다. 마무리로 인용한 문장은 YWCA 활동가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셨다. ‘법에 복종하는 자(국민)가 법의 제정자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성주류화 도구 학습 통해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살펴

성인지감수성 향상과 성평등한 관점의 YWCA운동 특강 수강 외에도 워크숍 기간 내내 매일 성주류화 도구의 학습


을 병행했다. 경남의 9개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실제 사례를 통해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고, 성차별 발생 원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불평등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공부했다. 이와 연계되는 성인지 통계의 중요성도 다시금 확인했다. 이윤숙 강사의 ‘기후와 성평등’ 특강에서도 젠더 데이터 공백이 여성의 안전, 건강, 일자리 등을 얼마나 취약하게 하는지 강조했다. 같이 성별 통계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회원 YWCA는 지자체 사업들이 성별 통계 구축을 기반으로 펼쳐지는지 모니터링해야 함을 잊지 않게 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서 연계의 학습은 YWCA 활동가들이 지자체 공적위원회 참여나 의정모니터링 활동 등을 실시할 때 사업을 이해하고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차별과 배제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성평등사회

오랜 가부장제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왔던 ‘힘의 문화’는 우리 삶 가운데 뿌리 깊이 스며있어서 성인지 관점으로 분별하는 감수성이 없으면 인종·직위·나이·계급 등에서 오는 불평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사회에는 개선의 여지도 없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과 배제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성평등한 사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민감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우리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업무를 잠시 체져 두고 성평등운동 워크숍으로 보람찬 6월을 보낸 경남YWCA 실무활동가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하며, 경남YWCA협의회 워크숍이 이 지면을 통해 소개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국YWCA 연합회에도 감사를 드린다.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지자체의 적극적 이행 의지 핵심



한국YWCA연합회는 7월 10일(목) 오후 2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43명(온라인참여자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전 세계, 특히 우리 사회에 방사능으로부터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대중의 불안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 특히 수산물과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는 많은 지자체에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며 먹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한국YWCA는 이러한 조례들이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성인보다 방사능으로부터 더 취약한 영유아 및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지 면밀히 확인해 보고자 본 모니터링을 기획하고 수행하였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후 도입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여 궁극적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조례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 주민 청구 사례, 행정 기관의 대응 방식, 그리고 관련 정보의 공개 수준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였다.

전국 61곳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모니터링

전국 11개 지자체 수산물방사능 안전관리조례 모니터링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YWCA 회원 20개 지역(고양, 광양, 광



전국 61곳의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모니터링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는 전국에서 20개 회원YWCA가 참여했다.



주, 남원, 대구, 대전, 부산, 부천, 사천, 서귀포, 속초, 수원, 순천, 안양과천군포의왕, 여수, 울산, 의정부, 인천, 전주, 진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은 전국 44곳의 기초지자체와 4곳 광역지자체, 11곳의 교육청, 2곳의 기관 등 총 61곳으로 학교급식, 공공급식의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한 22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광주 동구, 광주 서구, 남원, 부산 강서구, 부천, 사천, 서울시, 안양, 의정부, 파주, 서울시)를 선정하여 수산물 방사능 시민청구제도의 실효적 운영 여부를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은 2025년 3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례 원문 검토,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담당 공무원과의 심층 전화 인터뷰, 그리고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 기사 검색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심도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전국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지자체 23곳만 방사능 검사 조례 미이행률 47.7%

먼저,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지자체 44곳 중 21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실제 방사능 검사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조례 미이행률이 47.7%나 달했다. 조례 미이행 사유로는 지자체의 의지부족, 광역지자체에서 관리하므로 별도의 자체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 예산낭비라는 인식이 있었다.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23개의 지자체들은 4가지의 유형의 방사능검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경남 통영, 서울 강남구 등 5곳의 지자체는 식재료 공동구매업체의 방사능검사 성적서 제출로 관리하고 있었고, 경기도 의정부시, 경남 양산시 등 13곳의 지자체는 직접 급식 식재료 검체를 식재료 납품업체 및 학교현장에서 수거해 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전북 군산, 경남 진주시는 공동구매업체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 제출과 식재료 검체를 직접 수거해 샘플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부산 기장군의 경우는 학교 5곳에 방사능 핵종분석기를 설치해서 학교 현장에서 직접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고, 전문기관의 정밀검사도 월 2회 이상 진행해서 이중 검사체계를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외 11곳의 광역교육청 역시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중 교육지원청인 순천교육청은 학교에서 직접 수거한 수산물검체를 신속검사를 통해 진행하고 공동구매업체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중의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신속검사에 사용된 측정기가 세슘30-40Bq/kg, 요오드 77Bq/kg이상이므로 오염된 경우에서만 검사의 정확도를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왼쪽부터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 주자연 여수YWCA 간사, 박미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장

특히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는 식품에 함유된 방사능 오염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학교에 보급하는 데 그쳐, 예산 낭비 사례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광주 광산구 역시 휴대용 측정기로 버섯류를 검사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정밀검사의 25개 자치구에 방사능 기기를 보급해 신속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세슘10Bq/kg 이상에서만 검사의 정확도를 담보하고 있었다.

검사 이후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후속조치에 대해 모니터링했는데, 대부분은 국가 허용기준치인 100Bq/kg 이하일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직까지 검출된 사례가 없어 검출 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처리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부산 기장군은 검출치를 단계별로 정해서 처리하는 기준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는 1Bq/kg의 강화된 처리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전북 군산은 미량이라도 검출될 시 3차 정밀검사까지 진행해 미량이라도 검출될 시는 전량 폐기한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전국 22개 지자체가 수산물 방사능 안전조례 제정 방사능 검사의 신뢰도와 실효성에 한계 지녀

전국적으로 22개 지자체가 수산물 방사능 안전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중 19곳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를 포함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시민청구제도가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지자체도 있었고, 어떤 체계로 운영할지에 대한 과정과 절차가 수립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상세한 안내가 부족하여 시민들이 제도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안양시의 경우는 직접 이 제도를 이용해 검사를 직접 청구해봤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원하던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을 선정해서 검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검사 장비는 10Bq/kg 이하의 저선량 오염을 감지하기 어려운 신속 측정기이거나, 간이 검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 검사 결과의 신뢰도와 실효성에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조례의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지자체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 그리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여수YWCA는 여수조례와 타지역 사례 비교 모니터링 청소년이 직접 분석한 여수조례 내용 공유하기도

모니터링 결과 발표 후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했던 여수YWCA 주자연 간사의 모니터링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주자연 간사는 여수조례와 타지역 사례를 비교 모니터링하여 여수지역조례의 한계를 인식하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개정 필요성을 전했던 과정을 발표하였

다. 특히 급식조례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분석한 여수조례의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어질 활동을 모색하는 과정 역시 발표하면서 지역에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혜정 대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능물질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일본의 기타 지역에서 오는 식품 가운데서라도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세슘(134Cs, 137Cs) 외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오염 식품의 국내 유통이 차단되는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두 지역(국가) 이상 원재료 혼합 시 원산지 표시가 '수입산'으로만 표기되어 실제 일본산 포함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이 식품을 들여오는 경우, 엄격한 검역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검역·통관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전하였다.

또한 방사능 안전급식조례를 제정했지만, 지자체 차원의 방사능 측정기기를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곳은 광역시도에 불과하여 대부분 지자체들이 검사하지 않거나 샘플을 수거해서 광역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형태라고 전했다. 광역시도가 검사할 수 있는 총량은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공공급식제도를 운용하여 민간·연구기관의 검사제도가 병행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급식 방사능 안전망을 모범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박미진 센터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공동구매업체의 입고 단계에서의 방사능 검사 의무화, 검사 건수의 지속적인 확대,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연계, 정기적이고 다각적인 안전성 검사, 그리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통해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음을

전하였고, 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뿐 아니라 실제 실행되는지 여부, 실행 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급식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전국 규모의 방사능 안전급식 및 수산물 안전조례 모니터링을 통해, 각 지역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실태는 매우 상이함을 확인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 급식 분야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예산 부족, 담당 인력의 부재, 혹은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검사 체계가 미흡한 곳이 여전히 많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은 수준의 간이 측정기에 의존하거나, 단순한 검사 성적서 제출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는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명확하고 투명한 검사 절차 마련

최신 기술의 정밀 검사 장비 도입해야

조례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예산 확보, 명확하고 투명한 검사 절차 마련, 그리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정밀한 검사 장비의 도입 및 활용, 수산물로 집중된 검사를 넘어 실제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가공식품 외 농축산물품목의 검사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YWCA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와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제언과 감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진실과 평화를 향해 행동하는 용기



한국YWCA는 지난 3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수요시위의 역사와 함께, 여성인권과 평화를 위한 이 싸움의 현장에 연대하고 있다.

올해 2025년은 한국YWCA연합회가 창립 103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이를 기념하며 YEEK(YWCA Week) 주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YEEK 주간의 활동 중 하나로, 한국YWCA연합회는 제169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억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 그 길 위에서 서는 것이야말로 한국YWCA 103년의 운동을 오늘로 이어가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었다.

일본 정부는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들의 외면과 부정은 가해의 책임을 부정하며, 역사를 지우려는 반복된 시도일 뿐이었다.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분명히 말해왔다. 평화는 가해의 부정 위에 세워질 수 없으며, 진정한 사죄와 배상 없이는 어떤 해결도 없다는 것을.

여성의 몸을 전쟁과 폭력의 도구로 삼은 국가폭력과 권력의 폭력에 맞서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전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은 전쟁과 폭력의 현장에서 목숨



을 걸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 평화비가 철거 위기에도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것은 단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 성폭력과 구조적 폭력 앞에 침묵을 강요당한 모든 여성의 연대와 기억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한국YWCA의 Y-틴은 올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중점운동 주제로 삼았다. 청소년들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우리가 기억하겠다”는 다짐으로 이어갔다. 한 해의 주제를 정해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Y-틴의 운동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정의를 향한 감각이자 연대의 출발점이었다.

청소년들은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다시 폭력을 반복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행동으로 답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연대의 행동이야말로 할머니들이 살아온 고통의 역사를 평화의 언어로 번역하는 길이며,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고 믿는다.

수요시위 현장에서 한국YWCA연합회의 손지수 청년 활동가는 “청년은 역사 앞에서 중립일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여성혐오에 저항하고 민주주의 파괴에 분노하며 광장에 모였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 광장에서, 국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으로 배웠다고 발언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폭력이 오늘의

여성에게, 오늘의 청년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YWCA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며 내란 혐의 수사를 엄정히 수행할 것을, 국제사회에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를 확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침은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외침이자,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약속이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증언은 교과서보다 강력한 교육이었다. 그분들의 삶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평화인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YWCA 활동가들은 “침묵이 강요되는 사회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고, 외면되는 진실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기억을 멈추지 않고,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다짐이었다. YWCA는 지난 103년간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행동으로 이어갈 것이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진실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은, 기억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말씀은 한국YWCA가 왜 운동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늘 묻게 한다. 왜 연대해야 하는지, 왜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또 묻는다. 쿠팡에서 심야노동을 하며 “개처럼 뛰며”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반복하며 살아가던 청년 정슬기 노동자는 과로 끝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심야 로켓배송은 청년의 몸을 무너뜨렸고, 결국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나게 했다. 이윤과 속도가 생명을 짓밟는 구조는 그의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한국YWCA는 6월 2일(월) 연대해오고 있던 쿠팡 정슬기 노동자의 1주기 기도회 현장에 참여했다. 정슬기 노동자의 아버지는 “다시는 이 땅에서 저희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노동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세상을 이룰 때까지 모든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협력해 노동자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울부짖음과 함께 기도했다. 참가자들은 일터가 생명을 지

킬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가 실현되도록, 더 이상 누군가의 죽음으로 버티는 사회를 끝내기 위해, 연대를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세종호텔 고진수 노동자가 고공농성에 오른 이유도 다르지 않다. 2001년부터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노동자는 2021년, 코로나19를 핑계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손님이 돌아오고도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고는 해제되지 않았다. 2025년 2월 13일, 고진수 노동자는 서울 한복판 20미터 높이의 교통표지판 위로 올라가야 했다. 해고가 없는 세상,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아직도 그는 고공에 있다. 해고는 가족의 일상과 미래를 흔들고, 존엄을 앗아간다. 부당한 해고의 현실 앞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외롭다. 한국YWCA는 함께 싸워야만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고진수 노동자가 싸우는 자리에 함께 서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매주 일요일, 한국YWCA는 도시락을 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거리기도회



쿠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님 1주기 추모기도회

고 고공농성장으로 향한다. 도시락은 단순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당신의 싸움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 “함께 먹고 함께 살아내자”는 연대의 신호였다. 폭염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함께 전한 기도는 고공 위로 닿아 고립의 벽을 허물기를 바란다. 기도는 단지 눈을 감고 올리는 말이 아니었다. 기도는 삶의 자리에서, 거리의 자리에서, 싸움의 자리에서 함께하기 위한 다짐이었다. 구미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노동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노동자도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 맞서 고공으로 올랐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살려 달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싸움은 우리 사회의 침묵과 무관심에 대한 경고였다. 이 싸움을 더 이상 혼자 하게 두지 않기 위해 한국YWCA는 그 자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2025년 6월 13일(금), 한국YWCA는 “3개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인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YWCA는 이렇게 발언했다. 우리의 신앙이 기도로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현실의 눈물과 고통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행동하겠다. 해고의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지켜지도록, 함께 싸우겠다.” 기자회견에서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고백했다. 노동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며 연대의 손을 잡았다.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눈

물이 흐르는 자리에 함께 서고, 눈물을 닦아주며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싸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냈다. 또한 최근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들은 직원회의 자리에서 한 가지 결정을 모았다. “우리가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와 도시락연대를 하듯이, 최장기 고공농성 중인 여성 노동자와도 연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직원회비를 따로 모아 구미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결정은 ‘당신의 싸움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은 다짐’이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누군가 고공으로 올라야만 하는 것은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외치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높은 철골 위의 좁은 공간,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임을 믿는다. 우리는 왜 연대하는가.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더 이상 고공에 오르지 않도록, 더 이상 해고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싸움이 혼자만의 싸움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한국YWCA의 길이다. 그것이 우리의 운동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다. 함께 울 때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기술매개젠더폭력^{TFGBV}이라는 새로운 위협

위험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할까



기술은 새로운 자유를 약속했다. 공간의 벽을 허물고, 시간의 간격을 좁히며, 세상과 이어지게 했다. 그러나,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능성은 동시에 새로운 위협을 낳기도 했다.

기술매개젠더폭력^{TFGBV,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은 기술의 위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언제든 찍히고, 언제든 유포되고, 언제든 협박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한다. 불법 촬영, 딥페이크, 위치추적, 온라인 스토킹,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은 더이상 ‘특별한 범죄’가 아니라, 여성들이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기술매개젠더폭력은 새로운 기술의 속도를 타고 더 정교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개인의 감당으로 방치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은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우리를 압박하고, 법과 사회의 대응은 너무 느리며, 그 사이 피해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치고 있다. 이것은 기술이 발전해도 안전은 함께 발전하지 않는 사회, 위험의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위협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학청년YWCA 운영위원 4인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술이 주는 자유, 그리고 공포

셸리 : 기술 덕분에 누구나 쉽게 말하고 연결될 수 있다

는 게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TFGBV 문제를 보고 나니까, 그 자유가 동시에 공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요즘 친구들 중에도 SNS에 사진 하나 올리는 것조차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

랜들 : 맞아, SNS는 표현의 공간이고 자유의 상징 같았는데, 이제는 언제든 그 사진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계정을 닫고 싶어지기도 해.

부 : 기술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가능성이 우리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게 TFGBV가 보여주는 현실 같아. 그리고 그 위험은 너무 쉽게 일상 속으로 들어오잖아. 단순히 사진을 올린 것뿐인데, 그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유포되고 협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한 번 유포된 뒤에는 완전히 삭제하기도 힘들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

마이크 : 결국, 기술이 보여주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려면, 그 자유가 누군가의 공포가 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TFGBV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랜들 : TFGBV는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최근엔 10대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심지어 가해자가 되는 사례도 많아. SNS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워.

셸리 : 어느 날 갑자기 내 얼굴이 합성되어 유포될 수도 있

고, 그 피해는 나 혼자만 겪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에게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야. 결국, 이런 일은 내 자존감, 인간관계, 앞으로의 꿈과 기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며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어.

피해에 대한 부담은 왜 개인에게 전가되나

부 : TFGBV 문제에서 가장 화나는 건, 가해자와 기술이 만든 위험인데 그 피해를 피해자가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거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삭제되기 전까지의 고통, 재우포에 대한 두려움, 끝없이 이어지는 신고와 삭제, 지속적인 모니터링 비용은 결국 피해자가 감당하고 있어. 이 구조가 과연 제대로 된 걸까?

셸리 : 맞아. 특히 피해자가 이미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불법 영상 삭제를 위해 증거 수집, 경찰 신고, 삭제 요청, 재우포 모니터링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게 너무 가혹해. 신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수사가 늦어져 영상이 더 퍼지는 경우도 많아.

마이크 :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돌아다니는데도 플랫폼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는 삭제를 요청하고 다니며 고통받아야 해. 유포는 몇초 만에 이루어지는데, 삭제는 몇 달씩 걸리고.

셸리 : 가해자는 온라인에서 쉽게 숨을 수 있고, 플랫폼은 수익만 얻고 책임은 지지 않고, 결국 피해자가 가장 취약한 위치에서 싸워야 하는 구조가 너무 불공평해.

문제 해결의 시작,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이크 : TFGBV 문제를 피해자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피해자가 감당하는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구조로, 모두가 함께 TFGBV에 책임지고 대응해야 해. 피해자가 혼자서 싸우는 구조를 깨야지.

랜들 : 국제적인 연대도 필요해. TFGBV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야. 온라인 스토킹, 딥페이크 성폭력,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 같은 사례가 미국, 유럽, 아시

아, 아프리카 등 어디서나 계속 늘고 있어. 우리가 유엔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TFGBV는 이제 특정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일상이 된 모든 사회가 직면하는 구조적인 위협이야. 각국이 TFGBV 대응 기준과 법적 체계를 만들고 강화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해.

마이크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야. 지금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뒤에도 증거 수집부터 삭제 요청, 재우포 모니터링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데, 가해자는 온라인에 숨어 쉽게 책임을 피하고 있어. TFGBV 범죄는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폭력이니까, 수사와 처벌이 더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해. 그래야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가해자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분명히 전할 수 있어.

랜들 : 또한, 플랫폼의 책임도 중요해. 플랫폼이 먼저 TFGBV 관련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재우포를 막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돼야 해. 그래야 피해자가 끝없이 삭제 요청을 하며 고통받지 않을 수 있어.

부 : 가해자 처벌 강화, 플랫폼 규제,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 교육과 인식 개선, 국제적인 대응 등등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하는 건 많아.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셸리 :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 누군가 목소리를 내야 사회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움직이기 시작해. 한국에서도 ‘불꽃추적단’ 같은 청년들의 활동으로, 그동안 은폐되었던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했잖아. 그런 다음에, 법과 제도가 바뀌기 시작했고. TFGBV라는 새로운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진짜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인간과 기술의 책임을 나누는 철학적 기준

AI 시대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창조적 능력이 다시 AI 라는 기술로 위임되고 있는 국면을 보여준다. 신에게 있어 창작은 단순히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창세기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는 구절처럼, 창조는 의지와 언어, 존재의 소명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문학·예술 창작적 행위에 대한 가치와 그에 대한 저작권이 부여된 것이다. 반면, AI는 창작의 의도를 갖지 않는다. 어떤 목적도, 존재에 대한 책임도 없이 인간이 정한 프롬프트에 따라 결과를 낼 뿐이다. 신은 존재를 창조하고, AI는 데이터의 통계를 반복할 뿐이다.

인간 중심의 창작자 원칙

저작권법의 전통적 원칙은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라는 권리 주체에게 귀속되며, 이들만이 창작자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원칙은 창작을 의사와 표현의 산물로 보는 인간 중심의 저작권 체계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미국 저작권청도 “인간 저작물 human authorship”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콘텐츠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연방법원도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 보호의 목적이 인간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보호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저작권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창작자의 노력과 표현

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이다.

현재 AI는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AI는 법률적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으며, 창작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 비인격적 존재다.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저작권법은 인간이 아닌 기계나 소프트웨어에 의한 창작물에 대해 “그 작동에 필요한 조작을 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존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 규정이다. 다만,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기계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사실상 ‘창작’에 준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AI를 법적 주체로 인정하거나, AI를 도구로 사용한 경우에는 최소한 새로운 저작권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AI를 저작자로 인정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 중심 창작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AI 창작물의 법적 성격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법적 성격은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인간이 AI에게 창작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물을 선택·수정·편집하여 독창성을 부여한 경우,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해 인간 저작자의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번역에서 사용되는 포스트 에디팅 post-editing 처럼 기계번역 결과물을 사람이 창작적 방식으로 수정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이 생성될 수 있다. 반대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자율적

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현재 법제 하에서는 ‘저작물’로 보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은 공공재 public domain 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는 기술적 자율성의 정도, 인간의 개입 수준, 편집 및 창작적 판단이 개입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지브리 스타일 모방의 문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특정 작가 또는 스튜디오의 스타일을 모방한 경우, 최근 선풍을 일으켰던 ‘지브리 풍(style)으로 사진을 변환하는 것에 대한 법적 쟁점은 복수의 층위에서 발생한다. 먼저, 스타일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스타일’이 아닌 구체적 표현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I가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학습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나 장면을 생성해낸다면, 이는 ‘2차적 저작물’ 혹은 ‘복제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또한, AI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 data-set에 원저작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이용이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단복제’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최근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공정이용 fair use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논란은 정리될 것이다.

저작권 귀속의 기준

AI 생성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면, 그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 AI 생성물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해당 권리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주체 중 하나에게 귀속될 수 있다. 먼저, AI 개발자 또는 소프트웨어 제공자로서 AI의 창작 능력과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개발한 사람들


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SW를 실행하여 이용하는 것은 이들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더라도 이들에게 귀속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AI 사용자(프롬프트 입력자)인 생성형 AI 시스템에 구체적인 지시를 입력하여 결과물을 생성한 사람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지시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창작적 판단을 포함할 경우에만 저작권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AI 사용자에게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공재로 간주될 수 있다. 인간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 public domain 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현재 AI 사용자의 창작 개입이 존재할 경우, 그 인간 사용자를 저작권자로 보되, 창작성의 기준은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사람의 창작적 선택과 통제가 반영되지 않은 AI 결과물”은 등록 불가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인간 중심 저작권 체계의 재구성 필요성

창작의 의미와 저작권의 철학은 기술 변화에 맞춰 재구성되어야 한다. AI 기술은 예술과 문학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창작의 방식이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인간 중심의 저작권 체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창작의 주체와 동반자의 경계에서 있으며, 이는 기존 법체계와 표현 철학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향후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저작권은 표현을 독점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창작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계약이자 제도적 약속이다. 인간 중심의 창작 원칙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생명 존중의 연대가 공동체 살림으로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 위한 지원금 9천4백만 원 전달




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는 4월 24일(목)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한국YWCA연합회와 전국 50개 지역 YWCA, 시민들이 함께 모금한 성금 9천4백만 원을 안동YWCA 이순향 회장에게 전달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4월 2일(수) 피해지역인 안동 YWCA를 방문해 1차로 500만 원의 긴급지원금을 전달하였고, 이후 2차, 3차에 걸쳐 총 9천4백만 원을 안동YWCA에 전달했다.

한국YWCA는 3월 22일(토) 의성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 지역으로 급속하게 번지면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당하게 된 영남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17일간 산불 피해지역 복구지원을 위한 한국YWCA 긴급 모금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안동YWCA 강주영 사무총장이 안동산불 피해복구 기금 사용계획을 발표했다. 안동YWCA는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안동시에 피해 복구비로 8천5백만 원을 △산불피해 교회(15곳)에 이불 200채와 긴급지원비를 △협력 지역아동센터(1곳)에 지붕피해보수 긴급지원비를 △과수원과 창고 피해 복구비를 △일직면 피해주민 100개 가정에 이불 100채를 △안동지역 청소년(5명)에게 집전소 복구비와 산불 피해 가정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다. 한국YWCA는 사상 최대 최악의 산불로 고통 받는 기후 재난 이재민들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살피며 지원해나갈 것이며, 기후위기로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기후재난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산불피해지역을 위한 긴급 구호 모금

2025.3.26. ~ 2025.4.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고미연 김도연 김미애 김소영 김수진 김순화 김영자 김영진 김은경 남궁혜경 노은경 박동순 박미라 박은애 박은실 박진화 박효정 배유미 배정미 백다정 백정희 변성림 서해원 손지수 송록희 송병철 송소연 신인숙 안정희 유은비 윤수정 이신선 이예림 이은동 이은영 이은혜 이주영 이하은 이해련 이희숙 이희정 임영순 임진영 장명숙 장하은 전공주 정서연 조미영 조은영 진정은 최수산나 최유주 최지영 한송이 허선영 허재성 홍수진 홍인숙 홍지안	6,760,000원
단체	50개 회원YWCA : 강릉, 거제, 고양, 광양, 광주, 군산, 김해, 남양주, 남원, 논산, 대구, 대전, 동해, 마산, 목포, 부산, 부천, 사천, 서귀포, 서울, 성남, 세종, 속초, 수원, 순천, 안동, 안산, 안양과천군포의왕, 양산, 여수, 울산, 원주, 의정부, 익산, 인천, 전주, 제주, 제천, 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파주, 평택, 포항, 하남 산성교회 서광교회	86,707,820원 1,240,000원
합계		94,707,820원

2025 YWCA 금융·경제 강사교육



2025 YWCA 금융·경제 강사교육이 3월 26일(수) 서울YWCA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강사교육에는 씽크머니(Think Money) 강사 54명이 참여하였으며,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습득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형태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와 공동체 내용을 추가하여 사회적 경제 이해 교육, YWCA의 가치를 담은 기후와 경제교육, 2024년 처음 배포된 합리적 소비를 주제로한 '빙고 씽크머니'보드게임 체험 등의 내용으로 꾸러졌으며, 교육평가서에 응답한 강사 중 83.3%가 교육이 유익했다고 응답할 만큼 강사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올해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Think Money)'는 전국 19개 회원YWCA에서 운영한다.

MBN UNDER 15, 방송규탄 여성계 기자회견



지난 3월 26일(수) MBN과 크레아스튜디오가 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15)>의 방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프로그램은 15세 이하 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POP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여성 청소년을 성적·상업적 소비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는 42개 회원YWCA와 7개 부속기관과 함께 연대 서명에 참여하고,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추은지 간사는 한국YWCA는 회원YWCA들과 함께 오랫동안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활동 등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아동·청소년이 대중문화 산업의 상업적 논리에 따라 전시되고 소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참담함을 표했고 결국 방영 중단되었다.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모니터링 활동 교육



지난 3월 27일(목)과 4월 10일(목), 한국YWCA연합회에서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모니터링 활동교육'이 진행되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례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교육이었다. 1차 교육에는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소대표와 하승수 공익법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하여 방사능물질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조례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 운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이해 및 정보공개청구법 활용법을 설명하며 시민 감시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2차 교육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활동가들이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검사 신청 절차를 익히고, '수입 수산물 방사능 국민검사 신청' 제도를 활용해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조례들을 분석하고 사례를 비교하여 각 지역의 강점과 보완점을 도출했다. 모니터링 지표를 기반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는 실습도 함께 진행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이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방사능안전급식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조례 개정 및 제정, 정책 제안 활동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4월 월례아침기도회



4월 월례아침기도회가 4월 1일(화)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김수산나 목사(섬돌향린교회)가 누가복음 13장 31~33절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산불피해 지역 복구와 제주 4·3의 희생을 기억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참된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4.3기억영화제 <목소리들> 상영 운동



한국YWCA연합회는 제주 43 사건의 여성 피해를 정면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목소리들>의 공동체 상영에 참여했다. 이 영화는 4.3영화 제주 여성들의 경험 침묵 속에 잠겨있던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끌어내는 이야기로, "관객이 만드는 100개의 상영관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일 전국 1만 명의 시민이 109개의 극장 상영을 추진하고 동시 관람했다.

연합회는 4월 3일(목) 오후 7시 30분 CGV명동에서 조은영 회장과 박윤애 이사 등과 30여 명의 실무활동가와 후원회원 등이 함께하여 <목소리들>을 관람했다.

2025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 (Think Money) 협약식



2025년 씽크머니(Think Money) 협약식이 4월 3일(목) 오후 2시 (사)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되었다. 씽크머니는 한국YWCA가 주관하고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하는 체험형 청소년 금융교육프로그램으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과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행장이 참석하여, 그동안 진행된 씽크머니 사업의 사회적 성과를 나누었다.

특히, 정승애 청소년금융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0년 동안의 씽크머니의 운영 흐름을 보고하였으며, 가치 중심의 체험형 금융교육을 제공해왔다는 점과 저소득층, 고립은둔청년 등 금융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게 금융교육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2024년까지 총 교육 인원은 650,130명이며, 올해 한국씨티은행은 한국YWCA에 1억의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Y-틴 실무활동가 워크숍



Y-틴 실무활동가 제1차 워크숍이 4월 4일(금), 온라인으로 15개 회원YWCA 실무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YWCA의 청소년 운동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강연과 더불어, 올해 Y-틴 중점의 제인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심화 교육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감사와 활발히 소통하며, 한 해 Y-틴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서 4월 23일(수),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차 워크숍 역시 15개 회원YWCA의 실무자들이 모였다. 제2차 워크숍 모임은 'Y-틴 전국연대행동 - 조례 제정개정 운동'을 중심 의제로 다뤘다. 참가자들은 수요일에 함께 참여하여 현장 감각을 직접 체험했고, 이후 연합회로 이동해 각 지역별 실천 가능한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2025년 YWCA 운동이슈브리핑



한국YWCA 운동과 관련한 현안을 이해하고 운동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인 <운동이슈브리핑>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격월로 진행한다. 기존 실무활동가 대상에서 회원YWCA 이사로 확대하여 지난 4월 4일(금)과 5월 30일(금) 두 차례 진행하였다. 1차에서는 탄핵 정국 관련한 한국YWCA 활동 공유, CSW를 비롯한 기술매개젠더 폭력 활동 등을 나누었고, 2차에서는 21대 대선 유권자 운동 전개, 대만 탈원전 상황 및 한반도평화행동 계획 등을 공유하였다. 각 회차별 연합회 및 회원YWCA에서 약 6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참석하였다. 차기 운동이슈브리핑은 9월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제1차 Y-틴 드림십 중간보고회



제1차 Y-틴 드림십 중간보고회가 4월 22일(화) 오후 1시에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동부팀(대구, 창원, 통영)과 서부팀(목포, 순천, 전주)이 각각 그간의 활동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Y-틴 위원들도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나누었다.

2025 금융 인사이드아웃 강사교육



<다문화가족 아동 및 부모를 위한 금융교육, 금융 인사이드아웃>이 2025년 처음 운영된다. 금융 인사이드아웃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이 후원하고 함께 만드는 세상(사회연대은행)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아동 및 부모를 위한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2025 금융 인사이드아웃 강사교육은 1차와 2차로 각각 4월 14일(월)과 6월 25일(수)에 진행됐다. 1차 교육은 다문화아동 교육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을 시작으로 초등교육의 교안과 교수법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2차 교육은 유아 교육의 교안과 교수법에 대해 진행됐다. 강사가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교수법을 습득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참석한 강사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올해 금융 인사이드아웃 사업은 (사)부천YWCA, (사)수원YWCA, (사)안산YWCA,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사)인천YWCA와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운영한다.

미얀마 지진피해 회복을 위한 모금

2025년 3월 28일(금), 미얀마에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하는데, 한국YWCA연합회는 지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4월 7일(월)



연대기도문을 배포하고, 4월 15일(화)에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연대 단체들과 함께하는 기도회에 참석해 연대 발언을 전했다. 아울러 내전과 군사정권으로 불안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잇따른 여진과 폭우로 복구가 더욱 지연되고 있는 피해 지역의 이재민,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과 아이들을 지원하고자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금을 진행했다.

전국 회원YWCA에서 함께 참여한 이번 모금에는 8개 단체와 41명의 개인 후원자가 동참했으며, 총 5,210,000원의 성금이 모였다. 모금액 전액은 한국YWCA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7월 10일(목)에 전달했다.

521만원의 성금은 NCCK를 통해 피해 현장에 전달될 예정이며, 사용 내역과 현지 전달 소식은 추후 모금 페이지를 통해 공유된다.

2025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go100-고백'



2022년부터 이어져온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가 2025년부터 go100-고백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된다. 'go100-고백'은 한국YWCA가 앞으로 100팀의 여성청년활동가를 지원한다는 의미와, 후원자들이 여성청년활동가를 향한 지지의 마음을 후원금으로 고백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두 팀이 선정됐다. 『안녕, 교회학교!』팀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신앙교육 교재와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기독교청년활동가 팀이며, 『구현!』팀은 '엄마'라는 이름 뒤에 잠시 놓아두었던 기억과 감정을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마주하고자 한다. 두 팀은 4월 29일(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약 7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21대 대선 한국YWCA 유권자운동 전개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월 24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전국 50개 회원YWCA와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였다. 주요 4개 정당 후보자에게 한국YWCA의 정책 제안과 함께 공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취합 및 분석한 정책비교표를 회원YWCA 및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 및 시민들에게 공개하였다. 또한 전국회장단연수를 시작으로 정책 투표 인증샷을 전개하여 한국YWCA 정책에 대한 관심과 투표를 독려했다. 더불어, 여성신문 및 여성단체들과 각 정당 여성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5월 월례아침기도회



5월 월례아침기도회가 5월 7일(수)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손은정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가 출애굽기 6장 6-7절 말씀을 통해 '목요일 아침, 고공에 올리는 도시락 두 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는 세상과 여성의 권리와 정의로운 돌봄 사회를 위해 기도했다.

기술매개 젠더폭력 예방 교육 강사 워크숍

지난 5월 8일(목) 한국YWCA연합회에서 「기술매개 젠더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YWCA성평등정책위원회 전문위원 TF팀에서 제작한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합회 조은영 회장과 박은실 상임이사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추은지 간사의 프로그램 개발 취지와 기술매개 젠더폭력의 개념 설명이 이어졌다. 디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피해



자와 가해자 모두 청소년인 경우가 많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노하연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라라스쿨 대표)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실습과 운영 방안을 참여 강사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강사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운영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YWCA연합회는 향후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디지털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YWCA선배오찬모임



5월 12일(월), 한국YWCA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과 봉사로 함께해 주신 선배님들과 앞으로 한국YWCA가 나아가야 할 길을 나누는 "YWCA 선배오찬모임"이 진행됐다.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환영 인사와 YWCA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며, 지속가능한 YWCA를 위한 선배님들의 조언과 진솔한 제언을 나누는 시간,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21대 대선 정책토론회 "여성 유권자, 21대 대선을 말한다" 참여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5월 12일(월) 서울YWCA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 「여성 유권자, 21대 대선을 말한다」에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사라진 여성 및 성평등 의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성평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발표를 통해 "기



후위기는 여성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성평등 관점의 기후 대응과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후재난 속 여성의 피해 현실과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짚으며, 성인지적 기후 정책과 돌봄 노동을 포함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하나 여성신문 편집국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도 발제자로 함께 참여해, 성평등정책 후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향후 과제들을 공유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부분부장은 발표에 참여해 성평등정책 방향을 공유하였고 장혜영 민주노동당 마포구 위원장도 민주노동당의 젠더 공약을 소개하고, 성별 갈라치기를 넘어서는 정치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정치권에 보다 책임 있는 성평등 의제 실현을 촉구했다.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9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5월 15일(목),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9주기를 맞아 여성주의 연합예배에 공동주관으로 단위로 참여했다. 여성주의 연합예배는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범죄를 기억하며,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과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는 예배를 꿈꾸며 여러 공동체가 연대해 이어온 신앙의 자리이다. 올해 예배는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과 정의의 언어로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너희는 먼저 [] 나라와 [] 의를 구하라"(마태복음 6:33)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세상을 다시 그려보는 시간을 가

졌다.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 참가자들은 슬픔을 넘어서 다시 살아가게 하는 사랑과 연대의 힘을 확인했으며, 여성폭력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위한 신앙의 연대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담배소송 지지 서명운동 전개



한국YWCA연합회는 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소송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50개 회원YWCA와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인 '담배소송'을 전개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사법부에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항소심이 열리는 5월 22일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2개 단체와 함께 공동성명서를 통해 담배회사의 유해성 은폐와 소비자 기만 행위를 규탄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한국YWCA연합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6월 월례아침기도회



6월 월례아침기도회가 6월 2일(월)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김진희 목사(감리교신학대학교 객원교수)가 요한복음 6장 5-13절 말씀을 통해 '선의 평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의와 평화, 생명, 성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따르는 정부가 세워지기를 기도했으며, 해방과 분단 80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와 치유, 화해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함께 기도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의료사고안전망 기자간담회



한국YWCA연합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공동행동)은 6월 11일(수) 오전 서울 중구 서울YWCA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사고안전망 혁신안'을 제안했다.

의료공동행동은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의료소비자-공급자 연대체이다. 의료공동행동은 "의료사고에 대한 현행 소송과 형사 처벌 중심 체계가 의료진의 진료 위축과 의료 소비자-공급자 간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며 "환자와 보호자 역시 제대로 된 설명과 사과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료공동행동은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가진 '환자안전조사기구(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드러나더라도 고의적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신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책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마련하고 우선 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상한 뒤,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명확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자"고 제안했다.

가사근로자법 3년,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6월 16일(월), 제14차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가사근로자법 3년,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가사3단체와 가사-돌봄유니온, 이수진-김주영-정춘생-정혜경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가사근로자법 시행 3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가사사용인적용제외의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ILO 100차 총회에서 채택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조은영 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포함한 우리사회의 돌봄노동과 돌봄노동자에 관한 인식수준이 여전히 낮고, 근로조건 역시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이 폐지되어 모든 가사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7월 월례아침기도회



7월 월례아침기도회가 7월 1일(화)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이윤미 목사(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실장/소망교회)가 마태복음 5장 14-16절 말씀을 통해 '온빛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청년과 함께 정의의 길을 걷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후위기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을 기억하며 생명과 정의를 실천하는 YWCA가 되기를 기도했다.

YWCA경기권역협의회, 돌봄운동 간담회 개최



YWCA경기권역협의회(회장 박혜숙)는 7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돌봄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권 11개 YWCA의 회장과 사무총장, 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각 지역의 돌봄운동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는 안양과천군포의왕YWCA가 주관하

고, 김윤희 수원YW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마경희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는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와 돌봄의 공공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돌봄을 여성의 사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권리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는 임행심 부천YWCA 사무총장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현황>을, 정진아 의정부YWCA 사무총장이 <돌봄관리사 양성기관 운영에 대하여>를, 장미진 안산YWCA 사무총장이 <돌봄분야 민간자격증의 현황과 발급기관으로의 YWCA경기권역협의회 의감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제도과 현실 사이의 간극,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의 역할, 윤리적 돌봄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실질적 고민을 나눴으며, 경기권역 내 돌봄 정책 제안과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필레 한국YWCA 창립자 제42주기 추모예배



한국YWCA 창립자 중 한 분인 김필레 선생 제42주기 추모예배가 2025년 7월 9일(수) 오후 1시 30분, 정신여자중·고등학교 내 김마리아 회관 대강당에서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렸다. 김필레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추모 예배에는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 박은실 사무총장, 광주YWCA 김순자 회장, 윤정순 사무총장의 실무자 3명, 정신여중고 재학생과 동문, 유족,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는 김필레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으로 교육하셨던 광주수피아여중 서계상 교장선생님과 학생 5명이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김진란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추모예배에서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은 '시대의 경계를 넘나든 여성 리더, 김필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김필레 선생의 신앙과 민족 사랑, 여성 교육에 대한 헌신을 기렸다. 이어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가 시상하는 김필레상이 수여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라와 여성, 청소년 교육을 위해 평생을 바친 김필레 선생의 신앙과 리더십을 되새기며,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나눴다.

YWCA은학의집 새길예배



YWCA은학의집 새길예배를 7월 24일(목) 오후 4시 성남시 야탑동 은학홀에서 가졌다. YWCA복지사업단 이종임 이사장과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을 비롯하여 은학의 집을 이용한 어르신들과 가족, YWCA은학의 집 전현직 직원과 봉사자, 지역사회 공공기관 관계자 및 후원자, 한국YWCA연합회와 후원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은학의 집 새길 예배는 1992년 한국YWCA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을 결의하고, 2000년 5월 16일 개관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의 돌봄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25년간 펼쳐왔던 은학의 집을 폐원하고, 새로운 시대의 YWCA 노인복지모델을 만드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의도로 드려졌다. 이종임 YWCA복지사업단 이사장 인도,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기도, 김병권 목사(갈보리교회)의 '너희가 살고 번성하라' 제목의 말씀, 김재화 전 YWCA복지사업단 이사장의 감사의 시 나눔, 은학의집 운영에 함께한 후원자 및 교회, 단체들에 감사패와 선물 전달, 성남시와 지역 복지계 인사들의 격려사가 있었다.

동정

원영희 연합회 직전회장, 첫 시집 출간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직전회장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시, 그 중에 제일은...> 첫 시집을 발간했다. 2010년 5월, 월간 <心象> 지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원영희 시인은 이번 시와 산문집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언어의 순례자로서 한국YWCA의 운동과 연결하여 시적 감수성으로 정의, 평화, 기후위기에 대한 단상들을 표현했다. 문학평론가 박동규 시인은 시평에서 "원영희 시인은 성서의 구절에서 발원한 '언제나 다정한 그 힘'으로 진실을 갈구하고 소망으로 삶과 세계를 보는 눈을 가졌다"고 평했다.

미안마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한 모금

2025.4.18 ~ 2025.5.31(종료)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은혜 권부남 김미애 김연희 김영자 김태윤 김형남 남궁혜경 박윤애 박은실 박진화 박효정 반혜영 백정희 서금순 서해원 손은혜 손지수 송록희 신은미 신지철 안정희 유은비 이규숙 이숙영 이신선 이은영 이정아 이주영 이해련 이희숙 이희정 정서연 제승아 조은영 최수산나 최유주 최지영 최현숙 홍수진	1,650,000원
단체	(사)거제YWCA (사)논산YWCA (사)대구YWCA (사)수원YWCA (사)울산YWCA (사)창원YWCA (사)통영YWCA (사)포항YWCA	3,560,000원
합계		5,210,000원

북한어린이돕기 모금(농협 301-0161-5540-11)

2025.3.1 ~ 2025.6.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승아 강현중 고보경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가현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주영 김주현 김진영 나창더르즈 돌람수렌 남궁혜경 남희숙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은실 박진화 배인기 백혜진 송록희 송인호 신인숙 심은옥 엄세현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명선 윤수정 이만정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천진 이해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승환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최수산나 최지영 하은경 하지원 한영수 홍기자 (총 68명)	3,740,000원
단체	(사)목포YWCA (사)부산YWCA	554,390원
합계		4,294,390원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 go100 모금 현황

2025. 3.1 ~ 2025.6.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김수진 구정혜 배옥희 송록희 유성희 이주영 SUSAN S LEE(총 7명)	1,726,403원
합계		1,726,403원

한국YWCA연합회 후원

2025.1.1 ~ 2025.6.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희경 곽지영 김연희 김유현 김익태 김진영 김효정 박은경 백수경 손영태 손은혜 신인숙 안정희 이은영 이종임 이해련 전진숙 정다빈 정동신 조은영 차경애 최현자 한만희 한선현 한영수 함희경 홍현정 (총 27명)	8,324,300원
합계		8,324,300원

청(소)년 활동지원금 (농협 301-1922-0000-31)

2025. 1.1 ~ 2025.6.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구정혜 김병찬 김형남 남궁혜경 박동순 배정미 배창빈 배한울 신성규 양영심 원서영 조한울 (총 12명)	820,000원
합계		820,000원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위한 고공농성 고진수님 희망도시락 후원자(농협 301-0212-3441-71)

2025.5.1 ~ 2025.7.2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경숙 구정혜 김수진 김연희 김영자 김정신 노은아 박동순 박윤애 박혜숙 박희정 박효정 반혜영 배정미 서해원 손은정 이신선 이예림 이은영 이해련 이희숙 임진영 정근호 조은영 최지영 홍수진 (총 26명)	890,000원
희망도시락 배달 후원자 : 남궁혜경 박윤애 박은실 손예지 송록희 안정희 이은혜 이해련 최수산나 추은지		
합계		890,000원

경인·강원권역

(사)강릉YWCA

김가는 간사

기독교여성 아카데미, '어 성경이 읽어지네' 개강



강릉YWCA는 강릉 지역 여성들의 자아 발견과 여성 성장을 돕기 위한 기독교여성 아카데미를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어 성경이 읽어지네'를 주제로, 참가자들은 성경의 큰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의 기초를 더욱 견고히 다져가고 있다. 이번 과정은 성경이 처음인 이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말씀 앞에 함께 앉아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동해YWCA

정미숙 팀장

나눔 바자회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 실천



동해YWCA는 지난 4월 11일(금), 지역사회의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나눔 바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에는 지역 주민과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건강한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나누며 따뜻한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 현장은 이웃 간의 정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가득했다.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청소년 운동 기금, 지도력 양성 장학금 등 생명 돌봄 운동 기금으로 정직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동해YWCA는 이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서울YWCA 시민걷기축제



2025 서울YWCA 시민걷기축제가 5월 24일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렸다. 2000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걷기축제 올해의 주제는 '모두를 잇는 한 걸음'이었다. 갈등과 분열, 혐오를 넘어 '존중'과 '평화'로 나아가는 연대의 발걸음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참가자 개개인 'OO를 잇는 한 걸음'이라는 표어를 저마다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스티커를 붙이고 남산을 걸으며 화합을 향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사)속초YWCA

김다미 팀장

바다의 날 기념 플로깅



속초YWCA는 바다의 날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5월 28일(수) 오전 속초해수욕장에서 환경 캠페인(플로깅)을 진행하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밤비니어린이집 원생들, 속초YWCA 회원 및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해변에 방치된 담배꽂초와 플라스틱 음료 컵 등 쓰레기를 수거했다. 참가자들 모두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직접 보고 느끼며 분리배출, 지정 장소 쓰레기 배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운 시간이 되었다. 속초YWCA 지난 2021년도부터 플로깅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지역사회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사)원주YWCA

윤미혜 사무총장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인권 미술프로그램

원주YWCA는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



처 원주시 최초로 이주민 대상 인권침해 및 차별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5년도 강원지역 인권문화 확산 사업' 지원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원주시 가족센터, 원주 YWCA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결혼이주민여성들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자아를 탐색하고, 자신이 겪은 차별이나 어려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타인의 경험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웠다. 인권 미술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민여성들의 의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사)인천YWCA

문지혜 팀장

위원의 날(We One Day 우리 모두 하나 되는 날)



인천YWCA는 5월 24일(토), 영광교회 및 늘솔길공원에서 위원, 이사, 증경회장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공식행사에 이어 진행된 명랑운동회는 화합의 장이 되었고, 자연 속에서 펼쳐진 숲 해설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에 지친 위원들에게 힐링과 더불어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위원 간의 소속감과 단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위원을 발굴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의 장이 되었다.

(사)춘천YWCA

지은희 사무총장

2025 아나바다 바자회와 평화음악회

춘천YWCA는 5월 30일(금) 본부 주차장에서 <2025년 아나바다 바자회 & 평화음악회>를 열었다. 자원순환을 위해 해마다 열리는 바



자회와 더불어 평화교육네트워크 강원의 후원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작은 음악회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로운 후원처 개발과 춘천YWCA 이사님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춘천 YWCA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기권역

(사)고양YWCA

정니은 간사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슬기로운 의생활



고양YWCA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슬기로운 의생활' 프로그램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9차로 진행하였다. 고양특례시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 이 사업은 에코페미니즘 및 여성의 시선으로 환경과 기후 바라보기(이운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연구위원), 탈성장 돌봄사회로 전환하기(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패션산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의생활 (정주연 다시입다 연구소 대표), 내 손으로 고쳐 입어보기를 위한 재봉틀 배우기, 천연염색 배우기, 치앙마이바느질법 배우기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0월까지 '사지말고 바뀔입는 공유옷장 21% 의류교환파티' 및 기후관련 스터디 활동과 작품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다.

(사)남양주YWCA

이정은 팀장

상호존중 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남양주YWCA는 5월 23일(금)에 남양주시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이 상호존중 릴레이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은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남양주 지역의 복지기관 및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캠페인의 주요 활동으로는 SNS를 통한 메시지 전달을 하고 사진을 업로드 하여 다음 기관을 지목하여 릴레이 형식으로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마음으로 참여하였다.

(사)부천YWCA

박보근 간사

제2회 함께 연결되는 우리, 마을에서 평등걷기



부천YWCA는 4월 24일(목) 부천 진달래동산에서 "제2회 함께 연결되는 우리, 마을에서 평등걷기" 행사를 여성건강권 거버넌스 협약을 맺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경인드림아이콤플렉스,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평화미래플랫폼파란 등의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원미동 마을 안에서 여성건강권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부천YWCA는 "유연성 UP! 여성 건강 챌린지"라는 주제로 부스를 진행하였다. 부스에서는 자신의 건강생활습관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작성하고, 좌전골 측정기를 이용하여 유연성을 측정하였다. 특히, 유연성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체력 요인 중 하나

로, 유연성 측정을 통해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본인의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성남YWCA

장명자 사무총장

어르신을 위한 소비자 권리교육



성남YWCA는 5월 26일(월)부터 한 달간 관내 경로당 12군데 어르신 120분들에게 보이스피싱, 허위광고, 불공정 거래 등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성남YWCA는 소비자권리교육을 진행했다.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로서 철회, 환불, 리콜, 피해구제 신청 등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 절차를 쉽게 알려주면서 건강한 노년 소비문화로 소비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외 개인정보보호, 식품 홍보관 및 가정용 의료기기 선택 등도 설명하였다.

(사)수원YWCA

이민정 팀장

환경의 날 기념 '슬기로운 기후데이'



수원YWCA는 6월 14일(토) 수원YWCA회관 앞에서 환경의날 기념 '슬기로운 기후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가능한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YWCA 중점 운동인 환경, 청소년, 성평등, 평화통일을 주제 활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했다.

더불어 어린이 공유옷장, 우유팩 재생휴지 교환 등 지역사회 ESG 경영 기업들과 협업하여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 했다.

(사)안산YWCA

홍지인 국장

고려인 청소년 변화 프로젝트



지난 4월 12일(토), 안산YWCA 교육장에서 고려인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총 10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 체험과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그 첫 만남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서로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활동들을 함께 살펴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한 활동으로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게임을 통해 팀을 이루어 협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앞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키우며, 서로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김영미 간사

'함께하는 큰 행복' 하루차집



안양과천군포의왕YWCA는 4월 22일(화) 안양감리교회 파구스 카페에서 '함께하는 큰 행복'을 슬로건으로 YWCA 목적운동실천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차집을 열었다. YWCA 이사, 회원, 안양지역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 행사는 후원으로 구매한 티켓으로 식사와 차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정폭력상담소 홍보 모바일 설문, 삼베수세미, 양말목 공예 체험과 환경캠페인,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당일 행사의 수익금 중 일부는 통일쌀앗기금으로 적립되었다.

(사)의정부YWCA

김은숙

의정부YWCA 창립 46주년, '기후연대파티'



의정부YWCA는 5월 9일(금) 의정부 역사문화공간 '이음'에서 창립 46주년 기념 '우리들의 세 시간: 기후연대파티'를 개최했다. 의정부 YWCA 회원, 시민 7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된 이 행사는 다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상영과 감상 나눔, 기후 선언문 엽서 쓰기, 폐현 수막 활용 활동, 채식 밥상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연대 선언문을 다 함께 외치는 순간, 기후 위기 앞에 하나 되어 목소리를 내는 생생한 현상이 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사)파주YWCA

김래원 팀장

'앗싸, 기쁨교실' 운영



파주YWCA는 4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앗싸, 기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의 주요 이슈인 치매와 우울 등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이 프로그램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외로운 노인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며, 공동체적 경험까지 제공한다. '앗싸, 기쁨교실'은 파주 학령산으로 소풍, 맨발 걷기, 공동체 식사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을 찾도록 계속 진행된다.

(사)평택YWCA

이은영 부장

장애인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

평택YWCA는 4월 24일(목) 평택대광고회 1층 로비에서 장애인의 날



을 맞이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평택지역 주민들과 지역단체, 회원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바자회는 직접 만든 샌드위치, 김밥, 떡볶이와 어묵 등 맛있는 식사와 커피 차, 밀반찬, 여러 물품 등을 판매하였다. 바자회 수익금 3백만원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적응향상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에 전달하였다

(사)하남YWCA

김상미 간사

환경의 날 행사



하남YWCA는 6월 5일(목)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하남지역 내 5개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는 목화숨을 활용한 문치새 만들기, 캘리그라피 체험, 친환경 모기 퇴치제 만들기, 아나바다 장터, SNS 인증샷 이벤트, 거리 캠페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어 지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김난영 간사

실무활동가 연수

논산YWCA는 6월 12일(목)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태안에서 실무활동가 연수를 진행했다. 논산YWCA 본부,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아름다운 실무활동가 13명이 참가한 이 연수는 "나는 Y 활동가, 나는 만큼 맞춘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YWCA 활동가로서 YWCA의 소속감 고취와 자긍심을 높이고 정체성에 대해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기후미식, 회원확대운동 중간보고회'



대전YWCA는 4월 30일(수) 대전YWCA 4층 대강당에서 기후미식을 주제로 회원확대운동의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회원확대운동의 중간 경과보고와 참여자들의 사례를 나누는 후, 송순옥 대표의 '탄소잡는 채식생활 네트워크' 강의와 저철 유기농재료로 비건 포케를 함께 만드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기후미식 교육 이후 '2주 비건 챌린지'로 6월 16일(월)~27일(금)까지 2주간 비건을 실시하는 실천으로 이어져 작은 식단의 전환이 기후위기시대에서 생명을 살리는 변화가 될 수 있음을 알렸다.

(사)세종YWCA

장은정 부장

Y-틴 청소년 영어교실

세종YWCA는 Y-틴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월부터 8월까지 세종 Y-틴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2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진행되는 이 강좌는 지난 2월, 예비 중학생 5명을 선발해 시작했으며 청소년들이 3개월간의 꾸준한 수업 후 큰 성과를 이루었



다. 본 강좌는 단순한 영어 수업을 넘어, 미래 여성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사)제천YWCA

김미경 국장

제천YWCA 워십단 공연



제천YWCA 워십단은 5월 6일(화) 어린이대잔치에 참여하여, 어린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워십으로 공연하였다. 제천YWCA 워십단은 올해 정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세계기도일 예배 등 본격적인 대외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기독교를 가지고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하여 주님의 사랑을 워십으로 나누는 역할로 기여할 예정이다.

(사)천안YWCA

곽효정 팀장

2025년 이사·위원·실무자 워크숍



천안YWCA 6월 19일(목) 천안YWCA 이사·위원·실무자 대상의 「정책과제 논의를 통한 정체성 함양」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의, 평화, 생명 모듬으로 나누어 위원회별 논의, 2024년 SWOT 분석 결과공유, 향후 활동 방향 논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며 공동의 비전과 가치를 지향하는 천안YWCA가 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청주YWCA

한기연 팀장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2025 자원순환데이'



청주YWCA는 지난 6월 13일(금) 청주고인쇄박물관 앞 차 없는 거리에서 '2025 자원순환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주시 소재 30개 어린이집이 참여한 가운데, 우유팩과 멸균팩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민참여형 환경운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20개 어린이집이 직접 참여해, 원아들과 교사들이 가정과 기관에서 모은 우유팩을 가져와 분리배출하는 활동에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우유팩이 휴지로 다시 돌아오는' 자원순환의 과정을 체험하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환경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함께 배웠다. 청주YWCA는 "이번 자원순환데이는 단순한 재활용 캠페인을 넘어, 아이들과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실천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사)충주YWCA

이인선 간사

2025년 회원증모발대식



충주YWCA는 5월 15일(목) 2025년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같이 걷는 발걸음, 가치 있는 길"이라는 슬로건으로 함께하는 연대를 목표로 동역자를 찾고자 다양한 캠페인도 실천하기로 하였다. 회원증모운동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의견을 모아 시로 제작한 증점운동 카툰으로 충주YWCA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자료를 배포하고, 후원에 동참하는 회원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충주YWCA에서 실천하고 있는 페플라스틱 뚜껑을 재활용한 튜브짜개를 선물하며 현 시대 탈핵기후생명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독려했다.

경상권역

(사)거제YWCA

박숙혜 간사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 체험 활동



거제YWCA는 4월 24일(목) 전남 여수에 위치한 여수해양수산과학관과 여수월드서커스공연장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20명을 대상으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문화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문화체험활동은 문화 체험의 기회가 흔치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관과 여수월드서커스 공연관람, 그리고 무술목 해변 산책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참가자 모두에게 힐링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사)김해YWCA

이지현 사무총장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텀블러사용 캠페인

김해YWCA는 5월 29일(목) 김해시기후비상운동연합, 김해시자원순환과와 함께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와 텀블러 사용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텀블러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김해시는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시작으로 1회용 플



라스틱컵 사용 줄이기 등 다양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김해YWCA는 시민단체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사)대구YWCA

정필선 간사

대구YWCA, 창립 102주년 기념 기독교시민아카데미



대구YWCA는 4월 21일(월) 창립 102주년을 맞아 6층 강당에서 기독교시민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사, 위원, 실무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다.

'기독교민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하남담은교회 남정우 목사는 대구YWCA의 영적·사회적 책임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지속을 강조했다. 앞서 열린 창립 기념예배에서는 지역사회 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당부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김연희 회장은 회원들의 참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동행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YWCA의 102년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마산YWCA

이애라 사무총장

환경의날 Re:wear 공유옷장

마산YWCA는 6월 5일(목) 마산YWCA 강당에서 환경의날을 맞이하여 대안적 의류소비문화행사인 의류교환파티를 진행하였다. 의생활 속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자 최대 5벌의 옷을 가져와 옷에



대한 소개 또는 사연을 적어 태그를 알아 배치하고 본인에게 알맞은 옷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에는 패션사업과 관련된 영상도 함께 보고, 지구팔찌 만들기 체험부스도 마련하여 안입는 옷을 교환하는 것만으로 옷의 수명을 연장하고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높았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회원증모발대식 및 회원의 날



울산YWCA는 5월 13일(화) 농협울산유통센터에서 2025년 회원증모발대식 및 회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여는 예배와 김태경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회원증모 목표 안내, 수탁기관 소개, 릴레이토크, OX퀴즈, 가치컬러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개인·조별 미션을 통해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마지막에는 종이비행기 퍼포먼스로 YWCA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회원 간 연대와 소속감을 높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사)부산YWCA

신정은 간사

2025 해양환경 정화캠페인

4월 25일(금) 오후2시, 송정해수욕장에서 부산시 시민단체-공사공단 ESG 협의체(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부산환경운동연합, (사)부산YWCA, 부산YMCA, 부산그린트러스트) 제1호 공동사업인



"해양환경 정화캠페인"이 개최되었다. 이날 캠페인에는 총 40여 명이 함께 플로깅을 진행하였으며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ESG 가치확산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사)사천YWCA

강류안 사무총장

사천시 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사천YWCA는 지난 6월 9일(월) 사천시로부터 해양환경교육센터로 공식 지정받아 지역 해양환경 보호 활동을 본격화한다.

그동안 해양환경교육과 강사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사천YWCA는 이번 지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지역주민 대상 교육, 강사 역량 강화, 교재·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맞춤형 해양환경교육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사)안동YWCA

남수정 간사

바른식생활 교육



안동YWCA는 5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아, 청소년, 다문화 여성,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바른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동물복지, 감사의 밥상, 지구온난화 대응 식단짜기 등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주제로 이론과 간단한 조리체험을 병행한다. 5월 26일(월)에는 예천군 가족센터에서 먹거리와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과 찌두리 재료를 활용한 반찬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10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참여자들의 재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양산YWCA

성정미 간사

부활절 맞이 지역 나눔 활동



양산YWCA는 4월 16일(수) 부활절을 맞아 자원활동가와 실무자들이 지역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복지기관과 협력단체에 선물과 격려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산YWCA는 앞으로도 절기마다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주YWCA

윤인주 간사

2025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진주YWCA는 5월 11일(일) 경상국립대학교 내동캠퍼스에서 '2025 진주·사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경상대야름 다문화어울연구소, 사천다문화통합센터, 거주외국인연합회와 공동 주

관했으며, 서부경남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한복 체험, 글로벌 폴리마켓,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주민-선주민 교류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다.

(사)진해YWCA

김방현 간사

기후행동 캠페인



진해YWCA는 6월 13일(금) 오전 11시 창원 은아아파트 사거리에서 여러 단체와 함께 154차 기후행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리였다. 최근 기후 관련 뉴스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호응과 응원도 전보다 높아진 가운데, 진해YWCA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계획이다.

(사)통영YWCA

윤정형 간사

2025년 회원 증모 발대식



통영YWCA는 6월 14일(토) 회원증모발대식을 열고 회원 10% 증대를 목표로 다양한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YWCA 친구되기 캠페인 ▲회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SNS 활용 ▲굿즈 개발 ▲성평등 교육 등 4개 위원회의 실행안이 제안됐다. 사회문제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중점운동 홍보를 통한 지역 내 허브 역할 강화를, 교육청소년위원회는 회원 할인과 감사편지, Y-틴 활동 홍보 등을 계획했다. 홍보·출판위원회는 SNS 전략과 소액 회비, 굿즈 공모전을 통한 회원 증대 방안을 마련했다.

(사)포항YWCA

이예린 부장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지원 프로젝트

포항YWCA는 4월 23일(수) YWCA 회관에서 포스코1%나눔재단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32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비, 운동화, 여성용품, 안경 등 필수 생활용품을 지원했으며, 병원 검사비·치료비·약제비 등을 통해 건강 불균형 해소와 신체·학습 활동을 돕고자 했다. 포항YWCA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창원YWCA

하민화 간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드림십(Dreamship)' 필리핀 청소년들의 만남

창원YWCA는 5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대구YWCA, 통영YWCA와 함께 '청소년 드림십(Dreamship) 프로그램'으로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을 방문했다.

창원·대구·통영 Y-틴 청소년 10명은 현지 청소년들과 문화교류, 맨그로브 식재, 해양 쓰레기 줍기 등 기후행동을 함께하며 세계시민의식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전통놀이, 댄스, 선물 교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정을 나눴다.

전라·제주권역**(사)광양YWCA**

이효진 팀장

포스코GYR테크, 기후위기 대응 위한 시원한 나눔

광양YWCA는 5월 20일(화) 광양시경로식당 무료급식소에서 '포스코GYR테크와 함께하는 기후위기대응 환경개선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의 2,500만원 후원으로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온·보냉 도시락 가방 제작, 장화 소독건조기, 앞치마 건조기 등 위생설비를 개선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식사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 속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사)광주YWCA

조승리 과장

제31회 오월Y시민포럼 연극 '광천동 청년 용준씨'

광주YWCA는 5월 20일(화) 광산구청청소년수련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제31회 오월Y시민포럼 및 박용준열사 청소년 자립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1부 행사에서는 박용준 열사 추모와 함께 5명의 청소년에게 자립지원금(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용준 특별사업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105명의 청소년에게 지원해왔다. 2부에서는 박 열사의 삶과 5·18 민주항쟁의 의미를 담은 연극 '광천동 청년 용준씨'가 상연되어 참석자들이 민주화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사)군산YWCA

박순주 사무총장

의료법인 의인의료재단 차병원과 보건의료 협약 체결

군산YWCA는 6월 18일(수) 의료법인 의인의료재단 차병원과 지역 여성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YWCA 회원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으며, 양 기관은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조성과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사)남원YWCA

강현서 간사

남원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 조례제정 제안

남원YWCA는 6월 10일(화) 지역사회의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남원시의원을 만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 조례안' 발의를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제안은 학교 급식 및 공공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추후 조례제정을 통해 안전한 급식 환경이 조성되기 위한 지역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남원YWCA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만드는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안이 하루빨리 발의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직원 대상 직장문화 개선 교육 실시

목포YWCA는 6월 11일(수) 본부 실무활동가를 대상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일터'라는 주제로 직원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업의식과 직장예절 교육, 동료에 대한 롤링페이퍼 작성, 퀴즈 등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어 모루 철사로 키링 인형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서귀포YWCA

현영아 간사

2025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개강식

서귀포YWCA는 4월 29일(화) 서귀포YWCA회관에서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

행복드림아카데미는 중장년층의 은퇴 후 인생설계를 돕기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인생설계과정 수료 후 농작물손해평가사, 디지털 문해교육강사, 도배시공사 등 전문역량과정으로 이어진다. 과정 수료자는 자격 취득, 사회공헌활동, 강사활동 등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게 된다.

(사)순천YWCA

신정은 간사

아이돌보미 정서지원 영화관람

순천YWCA는 6월 18일(수) 순천 신대 CGV에서 아이돌보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소진 예방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쉬어오, 같이봐오' 오늘은 영화 한 편을 진행했다. 이번 영화 관람은 정서적 피로를 덜고 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긍정적 에너지를 얻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사)여수YWCA

주자연 간사

Y-틴·대학Y 인준식



여수YWCA는 5월 17일(토) Y-틴과 대학Y가 함께하는 인준식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여성성광교회 최종배 목사의 '꿈꾸는 자가 되라는 주제 강연이 있었으며, 2부 인준식은 기입장, 회원선서, 뱃지 수여로 이어졌다. Y-틴과 대학Y는 2025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기림활동, 제2회 이순신 청소년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계획이다.

(사)익산YWCA

윤명희 사무총장

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실천 활동



익산YWCA는 5월 31일 익산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재활용품 활용만 나만의 환경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청소년들은 수거세척된 일회용품에 상추 모종을 심고 이음표를 붙이며 자원순환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배웠다. 또한 텀블러나 개인 컵을 지참한 참가자들에게는 무료 레몬에이드를 제공하는 친환경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일상 속 자원 절약과 기후위기 대응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사)전주YWCA

손예지 간사

Y-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알리기 활동



전주YWCA Y-틴은 2025년 중점운동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전주사대부와 Y-틴은 관련 교육, 풍남문 평화의 소녀상 방문, '함께 함께, 평화비' 캠페인, 영화 [귀향] 관람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했다. 또한 학교 내 미니 전시회를 열어 대한민국 7대 요구사항과 현재 정책, 기림사업 등을 토레 학생들과 공유하며 의미를 확산시켰다. Y-틴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다짐했다.


(사)제주YWCA

김민지 간사

제주YWCA, '2025년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제주YWCA의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야간, 주말과정으로 100시간의 2025년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제주도 내 성폭력전문상담원에 관심있는 46명을 대상으로 여성학, 여성복지 및 정책, 성폭력의 개념 등 이해 과정, 법적절차 및 대응 방식, 피해자 등 의료지원 실무,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등에 대해 교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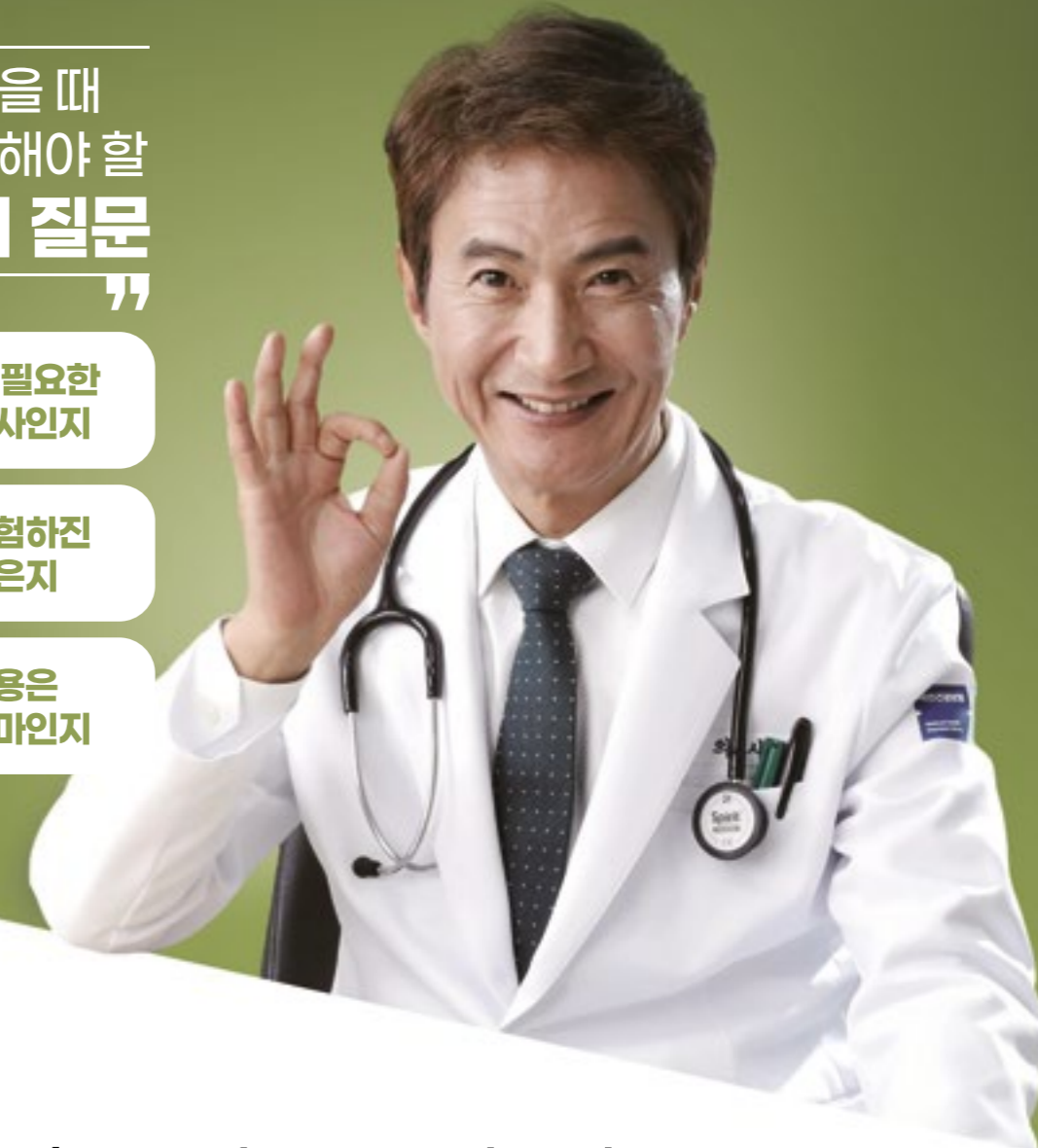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건강한 성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 성폭력 문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이수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전문상담 수료증이 발급되어 전문상담사 혹은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진료 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질문”

1 꼭 필요한 검사인지

2 위험하진 않은지

3 비용은 얼마인지



의사와 환자가 함께하는 현명한 소통 합리적 의료 이용 문화의 시작입니다